***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28일 목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56호

반미반부시투쟁에 총분기할 것을 호소

3월 25일,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에서 ≪전국민에게 드리는 서한≫ 발표

국민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미국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를 터쳐 반미반부시항전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부시의 ≪악의 축≫악담과 서울행각을 계기로 촉발된 우리 민중의 반미진출은 미제의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핵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민중의 이 반미반부시투쟁은 소수 선각계층에 국한된 투쟁이 아니라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지역적 범위를 벗어난 전지역적인 투쟁으로, 산발적인 한계를 넘어선 조직적인 연대공동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땅을 진감하는 반미반부시투쟁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존엄, 자주권을 위한 애국애족적 장거이다. 범국민적인 반미반부시투쟁으로 부시호전광은 된벼락을 맞고 이 땅에서는 반미애국성전의 새로운 전기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중의 반미반부시투쟁은 이제 첫자욱을 뗀데 불과하다.

지금 한반도에는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전쟁의 불구름이 밀려들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전국민적인 반미항전으로 겨레의 운명을 지켜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행정부의 모든 폭언은 북침전쟁과 직결되어 있고 모든 움직임은 핵전쟁의 궤도로 달리고 있다. 북을 ≪악의 축≫으로 걸고 들면서 군사적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부시의 전쟁폭언은 한갖 위협공갈이 아니다. 북을 핵공격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북의 평화로운 대상물을 파괴하기 위한 새로운 핵무기개발에 나선 것은 미국의 핵전쟁도발흉계가 이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부시의 서울행각은 그의 최종점검행각이였으며 뒤이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은 북침을 위한 핵전쟁 실증작전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의 하늘에는 북침을 겨냥한 핵항공기들이 난무하고 바다에서는 핵함대들이 요동을 부리고 땅위에서는 핵미사일훈련이 벌어지고 ≪핵배낭≫을 짊어진 푸른 베레모들이 북쪽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 엄중한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민족의 생존과 존엄, 자주권을 지키는 투쟁에서는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북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선 성쇄이고 이북 민중은 우리와 한 핏줄을 나눈 동포형제이다.

이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공갈은 곧 이남민중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북에 대한 핵공격은 곧 한반도를 핵참화속에 몰아넣은 민족전멸책동이다.

현대전에는 전후방이 따로 있을 수 없고 핵참화에는 남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군사패권주의 길에 기어든 부시호전광에게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 안중에 없다.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재물로 삼아 위기에 처한 미군산복합체의 숨구멍을 열고 미국주도하에 세계질서를 수립하려는 것이 부시행정부의 속심이다.

이 땅에 가공할 핵전쟁위기가 시시각각 엄습하고 있는 이 시각 우리에게는 단호한 결단이 요구된다.

한반도는 7천만 겨레의 삶의 터전이지 대양건너 양키들의 핵전쟁마당이 아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이 땅의 모든 국민은 평화를 지키고 민족을 수호하기 위한 반미반부시결사항전에 결연히 나서야 한다. 날로 악랄해지고 있는 부시정권의 대북강경폭언과 대북압살정책은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고의적으로 격화시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반평화전쟁책동이다.

우리 국민은 범국민적인 반부시반미투쟁으로 미국의 침략전쟁도발흉계를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주한미군과 핵기지는 핵전쟁의 불길을 안고 있는 근원이고 한국의 자주권을 말살하는 범죄의 아성이다.

민족의 안녕과 한국의 자주화를 위해서는 이 땅에 도사리고 있는 주한미군과 핵위기부터 추방하고 미국의 무기강매책동과 살인흉계반입을 저지분쇄해야 한다.

한미간의 공조는 한국의 안보를 위한 평화공조가 아니라 이 땅에 전쟁을 불러오는 전쟁공조이다. 한미간의 공조를 빌미로 한국에 무기강매와 미사일공격체제수립, 대북정책공조를 강요해 나서고 있는 미국의 흉계를 짓부셔버림이 없이는 전쟁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악의 제국 미국과의 전쟁공조를 짓부수고 동족과의 평화공조, 통일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나서야 한다.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자주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부시행정부야말로 ≪악의 축≫이다.

50여년동안 미국때문에 민족분단의 비극을 겪어온 것만 해도 통분할 일인데 그 미국에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까지 농락당할 수 없다. 반미반부시투쟁은 곧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실천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국민은 6.15공동선언을 차단하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는 부시정권의 범죄적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가열찬 투쟁으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은 이 땅의 냉전수구세력들을 길잡이로 하여 실행되고 있다. 이회창패당은 미국상전에게 대북강경정책을 충동질하여 ≪악의 축≫폭언을 토설케한 민족반역아이다. 이런 친미주구가 집권하면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이전의 대결원점으로 돌아가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

우리 국민은 미국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대선에서 친미주구 이회창을 낙선시켜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해 버려야 한다.

일방적인 군사패권주의로 국제적 긴장상태를 조성하며 인류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위기를 몰아오는 부시는 지금 세계적인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현 시국은 반미반부시투쟁의 대중화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의 반미운동조직들과 전위투사들은 부시의 정체를 전면적으로 발가놓고 전국민이 민족적 분노를 안고 거족적인 반미반부시투쟁에 나서도록 선도해 나가야 하며 더 많은 기층민중들을 포섭하여 반미투쟁조직에 결집하여야 한다.

반미투쟁에서의 승리는 민족민주운동의 단결에 있다.

각종 반미투쟁단체들은 밀접히 연대연합하여 단결된 힘으로 미제의 전쟁연습책동과 영구강점책동, 6.15공동선언이행방해행위를 저지분쇄해야하며 이 땅에서 미제침략군과 핵무기를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한다.

우리 민중은 거족적인 반미반부시결사항전으로 반세기가 넘는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민족분단을 끝장내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끝)

국방부, 결국 F-15K로 내정

논란을 거듭해온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기종이 사실상 F-15K로 결정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27일 낮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는 자통협, 평통사, 민주노총,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주최로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 고발 및 F-15K 선전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F-15K와 라팔 두 개 기종이 오차범위 3% 내에 포함돼 2단계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발표해 한미동맹 등 정책적 고려가 중요 평가기준인 2단계 평가에서 F-15K가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뉴스 2002-03-27

2 노작
-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축하문
-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위하여

4 세기와더불어
- 4장 10절 잊을수 없는 사람들 (2)

5 칭송
- 나는 일하는 것이 휴식입니다 / 누가 묻는다면
- 민족자주는 **김정일**각하의 위대한 통일철학

6 구국의 소리
- 한미호전집단을 단죄규탄하는 성명 발표
- 구국의 소리 뉴스 – 3월 26일
- 미국은 악의 원흉
- 만악의 근원,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16 조국통일3대헌장
- 통일운동의 진두에 서시여 (4)

9 조선중앙방송
- 주체 91, 3월 26일 보도
- 혁신적인 안목으로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

11 평양방송
- 조국통일대강 마련

12 아리랑뉴스
- 국방부, 끝내 미국 F15로 내정
- 발전노조, ≪파업은 계속된다≫
- 권영길대표–개혁적 정책노선 밝혀
- 한상열목사, 단식 후 기자회견
- 범청학련 구속자대책위 발족
- 정권장악이 한반도평화보다 중요한가
- 부시, ≪제네바 합의≫ 깨고파

15 운동강좌
- 진보정당건설에 대하여 2 (7)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축하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노작 - 주체77(1988)년 10월 18일

나는 세계평화리사회의 주최로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열린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를 열렬히 축하하며 회의에 참가한 여러 나라 대표들과 모든 외국손님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당신들의 이번 평양회합은 현 시기 국제정치분야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문제를 토의하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물론, 아세아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인류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는 길에서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애호력량의 완강한 투쟁과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오래동안 대결과 랭전의 분위기가 지배하던 국제관계에서는 점차 완화의 국면이 열리고 있으며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인류공동의 번영을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의연히 힘의 정책에 매달려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경쟁을 다그치고 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고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을 억압, 착취하기 위한 침략과 략탈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아세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확립하려는 야망밑에 이 지역에 방대한 핵무력을 전개하고 인민들을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아세아, 태평양지역에는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침해 당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정세를 개선하는것은 오늘 전반적국제정세의 완화과정을 촉진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절박한 문제이며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아세아, 태평양지역정세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고리로 됩니다.

지금 미국은 저들의 침략적인 아세아, 태평양전략에 따라 남조선을 영원히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 쥐기 위한≪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남조선에 핵무기와 여러가지 현대적인 전쟁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끌어 들이고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빈번히 벌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올림픽안전보장≫이라는 구실밑에 우리 나라 주변바다에 집결시켰던 항공모함타격전단들을 올림픽경기가 끝난 지금까지도 끌어 내가지 않고 도발적인 군사적소동을 계속 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여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방대한 핵무기가 남조선에 전개되여 있는 조건에서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쉽사리 조선반도의 범위를 벗어나 아세아, 태평양지역은 물론, 세계적범위로 확대될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세계 수억만 인민들이 핵참화를 면할수 없게 될것입니다.

조선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여야 하며 조선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세계평화위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방도로서 중립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제안과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 다국적군축회담을 가질데 대한 제안, 북남국회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제안을 비롯하여 수많은 평화제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침략책동과 분렬주의적립장으로 하여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광범한 인민들은 미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이 계속되는 한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적변혁에 대한 념원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자각하고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두어야 할 어떠한 리유와 구실도 없으며 더우기 비핵국가인 우리와 대치하여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 들이고 그곳을 핵기지로 만들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남조선에 배비한 핵무기들이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기 위한것이라면 쏘미사이에 일부 핵무기를 철폐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은 마땅히 남조선에서도 핵무기들을 철수하여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는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의 광범한 평화애호력량이 공동으로 투쟁할 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의 평화와 평화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 주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정부와 평화애호인민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번 평양국제회의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국제적여론을 더욱 힘 있게 불러 일으키며 조선반도와 전반적아세아, 태평양지역의 정세를 개선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위업수행에서 세계평화애호력량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인류를 핵참화로부터 구원하고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며 력사발전에 역행하는 현대제국주의는 평화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입니다.

현 시대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모든 평화애호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전쟁세력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 나설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광범한 평화애호력량이 강력한 국제적뉴대를 이루고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이르는곳 마다에서 반전, 반핵, 평화옹호투쟁을 힘 있게 벌려 나간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수 있을것입니다.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하며 다른 나라에 있는 침략군대와 침략적군사기지들을 철수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는것은 현 시기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핵전쟁을 방지하며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평화애호나라들의 건설적인 발기와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모든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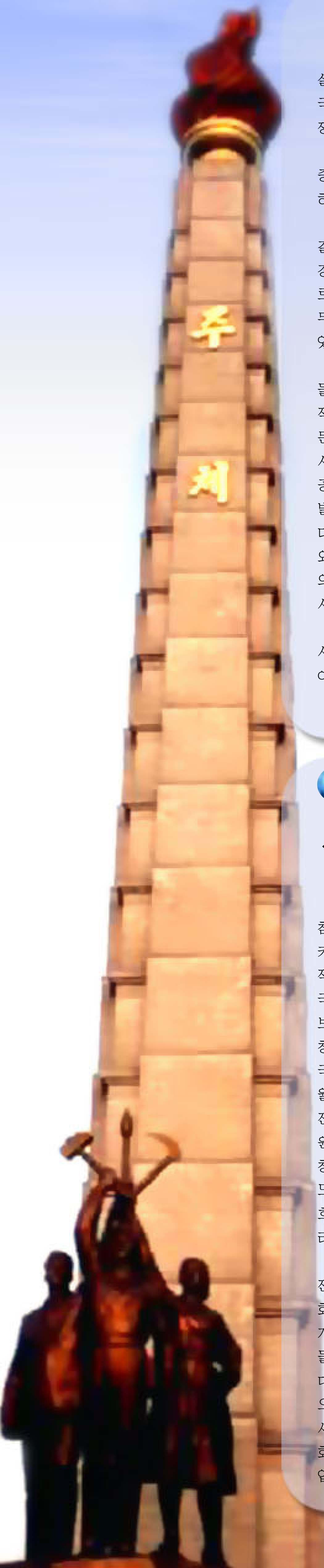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아세아, 태평양지역에서 침략군대와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핵무기가 없고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가 인류의 평화위업에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기대와 념원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훌륭한 결실을 가져 오기를 바랍니다.

(끝)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노작 - 국제의회동맹 제85차총회 개막회의에서 한 연설(발췌) / 주체80(1991)년 4월 29일



오늘 우리 인민은 인간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를 건설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정치철학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사고하고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할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입니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일심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가장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인민들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성격은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완전히 평등한 정치적권리를 행사하면서 건전하고 안정된 물질문화생활을 고르롭게 누리고 있으며 동지적사랑과 의리에 기초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다같이 발전해 나가는데서 뚜렷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당한 위업에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민은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인간의 리상사회를 끝까지 건설해 나갈것입니다.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사활적인 요구이며 국제정치에서 해결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조선인민은 유구한 력사와 우수한 문화전통을 가지고 대대로 한강토우에서 살아 온 단일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현 시대에 와서 둘로 갈라 져 살아야 할 그 어떤 내적요인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패국이 아니며 우리 인민은 장기간에 걸친 민족해방투쟁을 통하여 파시즘을 격파하는데 이바지한 인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전후에 조선민족의 의사에 배치되게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였으며 민족의 분렬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을뿐아니라 아세아지역에서 불안정하고 위험한 정세를 조성하는 하나의 근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민족자주성의 견지에서 보나 아세아와 세계평화위업의 견지에서 보나 하루빨리 해결되여야 할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선포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으며 이 원칙을 구현하여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것이 통일된 하나의 민족으로서 자주적으로 발전하려는 조선민족의 념원과 자주, 평화의 시대적요구에 부합되며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에서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는 이미 분렬의 장벽을 넘어 하나로 융합되였으며 조선은 하나이라는 민족적신념은 꺾을수 없는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민족의 앙양된 통일기운에 맞게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적극 발전시켜 나갈것이며 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국제정치에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는 오늘의 정치인들은 다른 나라 인민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할수 없으며 민족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국제적문제가 옳게 해결되도록 협력해 나서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조선문제에 책임이 있는 유관국가들은 물론이고 세계 모든 나라 국회와 정치인들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이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끝)

정치사전

세계평화리사회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도발 책동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며 전 세계평화애호력량을 단합하여 통일적인 투쟁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조직된 국제기구. 이 기구는 1948년 8월에 진행된 보로쯜라브평화옹호문화일군세계대회에서 창설된 평화옹호문화일군국제련락위원회와 국제민주녀성련맹의 공동발기로 1949년 4월 20일－25일에 빠리와 쁘라하에서 동시에 진행된 제1차 세계평화옹호대회에서 상설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정식으로 창설되였다. 그후 1950년 11월 뽈스까의 수도 와르샤와에서 진행된 제2차 세계평화옹호대회는 상설위원회를 해체하고 세계평화리사회를 조직하였다.

이 기구는 세계평화운동의 중심이 되여 완전군축, 원수폭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리사회는 1981년말 현재 135개 나라의 약 2,500개 정당, 사회단체와 30개의 국제조직대표들로 구성되여 있다. 최고지도기관으로서는 대회가 있다. 대회와 대회사이의 지도기관으로서는 리사회가 있다. 리사회는 대회에서 결정된 문제들을 집행하며 2년에 1차씩 회의를 소집한다. 리사회휴회기간에 그 사업을 책임지는 상무위원회가 있다. 상무위원회는 1년에 1차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집행위원회와 서기국이 있다. 본부소재지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이다. 기관지로 ≪평화옹호≫와 ≪세계평화리사회통보≫를 내고 있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1949년 4월에 이 기구에 가입하였다.

국제의회동맹

세계 여러 나라 국회그루빠들이 망라되여 있는 국제기구. 1889년 6월 29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빠리에서 진행된 9개국 국회의원들의 회의에서 창립되였다. 동맹의 기구로서는 총회(매해 1차씩 소집), 리사회(매해 봄과 가을에 소집), 집행위원회, 사무국, 조사위원회가 있다. 총회와 리사회의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분야의 중요 국제문제들을 토의한다.

이 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는 활동을 중지하였다가 전후에 재개하였다. 국제의회동맹에는 110여개 나라와 국회들(1982년말현재)이 망라되여 있다. 그중 활동을 정지 당한 나라는 19개이다. 우리 나라는 상아해안의 수도 아비쟝에서 1973년 4월에 진행된 국제의회동맹 제112차리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 기구에 가입하였다. 본부소재지는 제네바이다.

핵시험금지문제

모든 핵무기 생산 및 시험을 금지할데 대한 문제. 군축문제의 기본내용으로 되고 있다. 이 문제는 1955년 쏘련이 내놓은 ≪군비축소 및 원자무기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였다. 쏘련은 1957년 4월 유엔군비축소위원회에서 핵시험금지를 전면적핵금지문제로부터 분리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문제로 토의할것을 제의하였다. 1958년 10월부터 제네바에서 쏘, 미, 영 3개국 핵무기시험금지회담이 시작되였다. 회담에서 쏘련은 핵무기시험의 전면적금지를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지하핵시험을 제외한 부분적금지안을 내놓았다. 그후 1962년 3월 제네바에서 18개국 군축회담의 테두리안에서 쏘, 미, 영 3개국 핵시험금지분과위원회 형식으로 핵시험금지문제를 토의하였다. 여기서 쏘련은 서방측이 제기한 부분적핵시험금지조약초안을 회담의 기초로 접수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1963년 8월에 모스크바에서 쏘, 미, 영 3개국사이에 부분적핵시험금지조약이 체결되였다. 또한 1974년 6월 닉슨의 제2차 모스크바방문시에 쏘련과 미국은 150키로톤급이상의 지하핵시험을 금지할데 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2권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1. 손정도목사
2. 준엄한 봄
3. 카륜회의
4.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5. 조선혁명군
6. 혁명시인 김혁
7. 1930년 여름
8. 두만강을 건너
9.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2)

오가자의 문조양도 그런 사람이였다. 문조양은 오가자에서 반제청년동맹 조직부장으로 활동할 때 변달환, 최일천, 리몽린, 김해산과 함께 우리 일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다. 그는 우리와 함께 글도 쓰고 연설도 많이 하고 대중조직들을 꾸리는 사업에도 정열적으로 참가하였다. 아마 회의도 그의 집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다.

나는 오가자에 가있을 때 문조양의 형 문시준과 최일천이네 집신세를 많이 졌다. 문시준은 마음씨가 후한 사람이였다. 그는 몇 달씩이나 돈받지 않고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었다. 우리가 오가자에서 활동할 때 문시준이 우리 일행을 위해 돼지까지 잡아주며 아무쪼록 나라를 기어이 독립시켜달라고 부탁하던 일이 어제일 같다. 나는 그 집에서도 오래동안 침식을 하였다. 문시준이네 집에서는 식사를 할 때마다 밥상에 마늘짠지를 놓아주군했는데 그 짠지맛이 별맛이였다. 그 마늘짠지 맛이 얼마나 독특했던지 해방후 문시준의 딸 문숙곤을 만나니 그 생각부터 났다. 그래서 그를 초청해다가 마늘짠지 만드는 방법을 배워주게 하였다.

내가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우리 사람들이 마늘짠지를 만들어 밥상에 놓아주지만 어려운 때 오가자에서 조밥을 물에 말아먹으며 달게 먹던 그 짠지맛에는 비길 수가 없다.

얼마전에 문조양은 생일 80돐을 쇠였다. 나는 그때 오가자시절을 생각하며 그에게 꽃다발을 보내주고 팔갑상을 차려주었다. 나는 오가자에서 반제청년동맹위원장이며 ≪농무≫의 주인이였던 최일천의 집에서도 몇 주일씩 류숙하였다.

그 당시에는 그를 최천, 최찬선이라고도 불렀다.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 찍혀진 최형우라는 이름은 해방직후 서울에서 저술사업을 할 때 사용한 그의 필명이다.

오가자에서는 그가 제일 개명한 사람이였다. 그는 김혁처럼 시는 짓지 않았지만 뛰어난 산문가의 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권유로 여러해동안 장춘에 나가 비밀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동아일보≫지국장의 일을 맡아보았다. 그 과정에 우리에 대한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좋은 글을 써서 투고도 자주 하였다.

최일천

최일천은 일본정보계통이 주목하는 ≪요시찰인≫이였다. 그가 맡아보는 ≪동아일보≫지국의 출입문밖에는 매일같이 일본헌병들과 밀정들이 와서 그를 감시하느라고 당번을 섰다. 적들이 최일천을 주목하게 된 것은 그가 장춘에 나와서도 청년들과의 사업을 계속하였기 때문이며 국내애국인사들과의 밀접한 련계밑에 우리에 대한 선전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만에서 무장투쟁을 시작한 다음 그는 반제청년동맹조직을 통하여 직접 육성한 여러명의 핵심청년들을 항일유격대에 보내주었다.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 반영된 재만조선인들의 민족해방투쟁 실상과 그것을 유감없이 구사한 활달하고도 격정적인 필자는 바로 이상과 같은 혁명실천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수련된 것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최일천은 심양과 베이징에 있을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에 나와 국내의 저명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항일무장투쟁의 전과를 소개하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 그 정신에 따라 민족문화와 민족의 얼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최일천은 일본관헌들의 박해와 감시가 심해지자 ≪동아일보지국의 일을 할 때 만주각지를 돌아다니며 손수 수집해놓았던 우리의 투쟁자료들과 독립운동자료들을 가지고 서울에까지 나와 당시 조선어학회를 책임지고 있던 리극로선생에게 그 자료들을 모조리 넘겨주었다. 그 자료들 속에는 우리가 오가자에서 발간한 ≪농우≫잡지 묶음도 있었다.

≪이것은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입니다. 적의 감시와 추적 속에서 사는 나에게는 이 자료들을 간수할 힘이 없습니다. 나라가 독립되면 이 자료들로 력사서술을 하려고 하는데 리선생이 어떻게 하나 그때까지 잘 보관해주기 바랍니다.≫

그때 최일천은 이런 부탁을 맏기고 만주로 다시 들어갔다. 그는 해방직후 리극로선생이 자기의 부탁을 받고 소중히 보관해온 자료들을 넘겨받아가지고 단숨에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를 써냈다. 그 책은 파지를 모아 제조한 모래알까지 섞인 재생지에 인쇄된 것이였으나 구독자들이 너무 많아 력사와 문학을 전공하는 젊은 지식인들이 백지에 전문을 베껴가지고 다니면서까지 탐독하는 인기도서로 되였다.

최일천은 해방직후 미군정이 반공반북을 이남땅의 ≪국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총검으로 떠받들어주는 살벌한 환경 속에서 반일투쟁만화도 찍어내며 청소년들에게 반제반일정신을 고취시켰다.

해방 후 정치적 혼잡과 무질서가 지배하던 서울장안에서 그가 온갖 정신력을 다 동원하여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와 같이 무게있는 글을 써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최일천은 해방 후 남조선 정계에 진출하여 조선혁명당 정치부장, 신진당 중앙위원회부장, **김일성**장군환영위원회 위원, 민족자주련맹 집행위원 등 주요직책을 력임하면서 려운형, 홍명희, 김규식 등의 인물들과 손을 잡고 민주력량의 집결과 남북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는데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에서 반동들에게 피살되였다.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는 최일천의 미완성작이다. 그는 원래 2집을 낸 다음 계속하여 다음 권을 쓰려고 하였으나 해방 후 복잡한 남조선정치무대에 발을 들이민 후 시간을 내지 못하여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 책은 다음권에서 필자는 우리의 혁명활동을 전면적으로 서술할 계획이였다고 한다.

최일천이 살아있었더라면 우리의 혁명력사와 관련된 흥미있는 사료들도 더 나왔을 것이다.

세월이 많이 흐르다보니 항일혁명투쟁시기를 회상할 수 있는 인물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초기활동을 회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구나 적다. 나의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다. 잊어버린 사연들도 많고 어떤 일은 삭막해서 날자와 인문들을 정확히 회고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남만과 중부만주 일대에서 우리의 활동을 도와준 인물들 가운데서 김리갑의 애인 전경숙은 특별히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김리갑은 ≪금강관≫사건의 주인공으로서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도 소개된 사람이다. 중국사람으로 변장한 일본령사관 경찰들은 1930년 봄 길림시내 복흥가에 있는 오상헌의 집에서 김리갑의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결박하여 그를 장춘으로 련행해갔다.

그후 그는 재판에서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지고 대련감옥에 끌려갔다.

전경숙의 부모들은 딸이 김리갑과 같은 혁명가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그 녀자는 부모들의 뜻을 단호히 거역하고 탈가하여 애인을 따라 대련에 갔다. 그때 그의 나이가 열여덟인가 열아홉인가였다. 그는 방직공장에 들어가 공청책임을 지고 활동하면서 김리갑의 옥바라지를 성의있게 하였다.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동만특위서기로 사업하던 동장영이였다. 그는 자기가 대련에서 지하당 사업을 할 때 전경숙을 만난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의 열렬하고 진실한 사랑에 감동되어 ≪그 녀자를 만나보고 나서 조선녀성의 절개와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전경숙의 고결한 풍모에 탄복하였다. 나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만청총대회에 참가하려고 왕청문에 갔을 때 나에게 저녁을 지어주고 국민부의 테러계획까지 귀띔해주던 그의 모습을 새삼스럽게 그려보았다.

그리고 김리갑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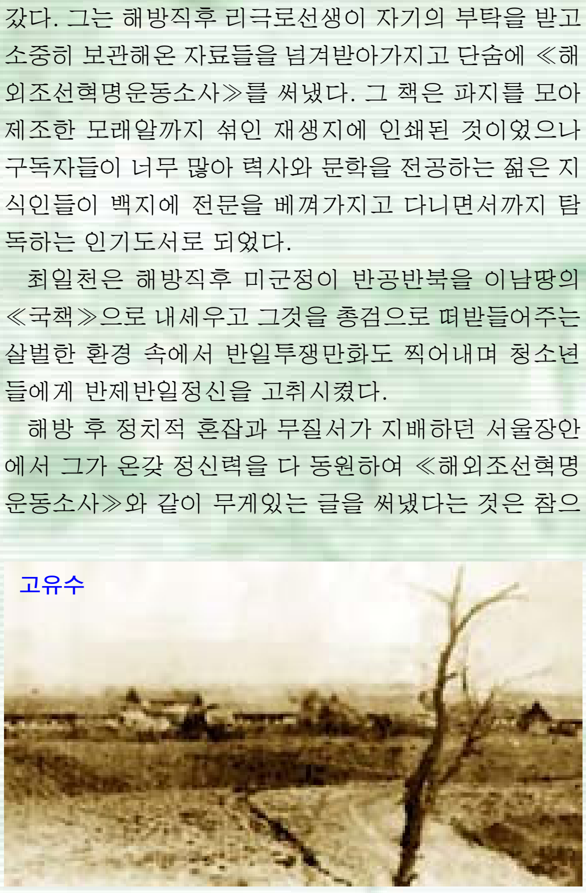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주대지를 뛰어다닐 때 우리에게 밥을 지어주고 푼전을 모아 학비와 로자를 쥐여주던 그 많은 은인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그런 은인들 중에서 아직도 생사와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이제라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마음 속에 맺혀있는 한이 다 풀릴 것 같다. 그 사람들에게 밥이라도 한끼 대접하고 한자리에 앉아 수십년동안 쌓이고 쌓여온 회포를 나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지난날 그들이 나에게 바친 그 로고와 지성을 죄다 보상할 수 있겠는가. 인민을 더 잘 살게 하고 우리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주며 인민의 지지성원 속에서 개척한 혁명을 완성하는 것이 그들에게 바치는 최대의 보상이며 선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인민에게 이런 보상을 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공산주의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끝)

고유수



일화

나는 일하는 것이 휴식입니다

김정일장군님의 건강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제일 안타까워하신 분은 **김일성**주석님이셨습니다.

1979년 초 어느날에도 주석님께서는 **김정일**장군님과 전화대화를 하시다가 겹친 피곤으로 하여 장군님의 음성이 갈리신 것을 헤아리시고 그분의 건강에 대해 깊이 심려하셨습니다.

주석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셔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동무들이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를 잘 받들어야 합니다. 조직비서도 사람입니다. 그도 쇠로 만든 사람이 아닌 이상 밤이 깊으면 자야 하고 때가 되면 식사를 해야 합니다. 피곤이 몰리면 좀 쉬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무들이 아다시피 조직비서가 매일 휴식도 없이 새벽에도 문건을 보고 앉아있으니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 주체위업을 위해 조직비서를 아껴야 합니다. 동무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리라 믿습니다.≫

이 얼마나 절절한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장군님께서는 주석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추호의 드팀도 없이 집행하시면서도 이 요구만은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주석님의 당부에 따라 측근에서 일하는 일군들이 장군님께 쉬어가시면서 일하시기를 청드리면 ≪다른 요구는 다 들어줄 수 있어도 휴식하라는 요구만은 들어줄 수 없소.≫라고 단번에 밀막아버리십니다.

하도 주석님의 거듭되는 권고와 측근 일군들의 끈질긴 요청에 못견디여 휴양지에 가시게 되는 경우에도 집무실에 쌓인 일감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가십니다.

어느날이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측근에서 사업하는 일군들을 부르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휴식할겸 교외에 다녀오자고 하시는 것이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바라던 일이여서 서둘러 준비하며 좋아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와서 그분을 모시고 길을 떠난 수원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가를 대뜸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달리는 차안에서 소형녹음기로 평양시건설과 관련한 주석님의 교시를 주의깊게 들으시면서 그 집행대책을 탐구하시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호수가에 도착하셔서는 그길로 가까운 숙소에 가시어 전화로 평양의 몇몇 일군들에게 평양시건설과 관련해 중요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때아닌 장소에 지방당일군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그분께서 전날밤에 그들과 만나자는 통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장시간 가르치심을 주시는 사이에 오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분께서는 저녁녘에야 잠깐 일군들과 같이 호수가에 나가 낚싯대를 잡아보셨습니다. 그런데 낚시터에서도 새 세대들의 체력향상대책이며 예술인들의 창작문제와 관련하여 여러모로 사색을 거듭하시며 많은 가르치심을 주시는 것이였습니다.

결국 모처럼 마련된 휴식은 자신보다도 일군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련하신 것이였으며 그분의 일터는 집무실에서 호수가로 옮겨졌을 따름이였습니다.

어느해 6월 강원도 고성일대에 대한 현지시찰을 마치시고 배편으로 원산쪽을 향하시던 도중 장군님께서는 한 나루터에 배를 정박시키도록 하시고 일군들에게 일광욕을 하도록 지시하시였습니다. 일군들은 며칠동안의 현지시찰의 피로가 겹쌓이신 장군님께서 쉬실줄로 생각하고 성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파라쉿 밑에 자리를 잡고 앉으시어 문건을 보시었습니다.

수행일군들은 일광욕을 하게 하시고 그 옆에서 사업하시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나루터의 배관리원은 갈린 목소리로 ≪옛날에 ≪신로군일≫이라고 하더니 이건 진정 그 반대로일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신하들이 수고하면 나라님이 편안하다고 해서 ≪신호군일≫이란 말도 생겼지만 장군님께서는 그 따가운 폭양밑에서 사업을 하시고 아랫일군들은 시간가는줄 모르고 뛰놀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그 반대인 ≪군로신일≫이 아니냐는 뜻이였습니다.

이렇듯 장군님에게 있어서 휴식은 아랫사람들을 위한 휴식이지 자신을 위한 휴식이 아니였으며 그분의 휴식은 곧 사업이였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괴로워 일군들은 **김정일**장군님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제안을 만들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 냈다고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어느날 한 일군에게 결정서 초안을 보았다고,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나는 일하는 것이 휴식입니다. 나는 아직 휴식을 따로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간생활에서 사업이 휴식일 수 없는 것은 말할 여지조차 없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업을 휴식으로 여기십니다. 이것은 높은 사명감을 지시신 장군님께서만이 내세우고 실천하시는 독특한 생활관, 혁명관입니다. 일하는 것이 휴식이라 하시며 불면불휴의 정력과 무한대의 열정으로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시는 **김정일**장군님의 고결한 풍모야 말로 인류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절세의 위인의 풍모입니다.

송시

누가 묻는다면

재일교포 노성해씨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용감한 인민들
사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들
사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인구와 영토의 크기를 가름하는
큰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의 경탄속에 부상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물으신다면 내 말씀드리지요
*** 나라, *** 위대한 장군님모신
강성대국의 나라가
동방에서 솟아오릅니다
조선에서 솟아오릅니다

어째서인가 물으신다면
내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이 세상의 모든 재부
맨먼저 받아야 할 나라
이 세상의 모든 행복
맨먼저 주어야 할 나라가
조선이 아니겠느냐고

행복, 아름다움, 용감, 슬기
인류가 창조해낸 이런 말들은
있어서 무얼 합니까
사람들 심장속에 ***한 인류의
가슴마다에 양심의 ***

그리고 유구한 역사에
인간이 가꾸어 놓은 이런 고귀한 말들이
살아 있는한
보십시오. 세상은 조선의 것입니다
미래는 조선의 것입니다.

흠모

민족자주는 김정일각하의 위대한 통일철학

조선을 방문한 스리랑카인민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더블유. 에이. 두민두와르다네는 경애하는 **김정일**각하는 특출한 정치실력, 령도실력으로 민족자주통일의 새 력사를 펼쳐 가시는 조선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시라고 칭송하였다.

그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는 길에서 거대한 업적을 쌓으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주석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선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하신것은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민족자주통일위업에 이룩하신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특히 세계를 격동시킨 력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그이의 정력적인 활동의 고귀한 결실이다.

북남최고위급상봉과 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세계적판도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세계정계와 사회계는 **김정일**각하의 담대한 모습과 능란한 수완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참으로 **김정일**각하는 주체적인 애국관에 기초하여 민족운명개척의 진로를 밝혀 주시고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민족자주는 **김정일**각하의 위대한 정치철학, 통일철학이다.

김정일각하를 모시여 조선은 머지않아 통일된 강성대국으로서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치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3월 26일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벌인 한미호전집단을 단죄규탄하는 성명과 호소문을 발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미군의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에 청년학생들이 앞장설 것을 주장해 21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침을 겨냥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한총련도 20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성명에서 민족의 의지와 무관한 긴장고조, 핵전쟁위협이 공공연히 진행되는 가운데 북전역을 점령대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98≫에 의거해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된다는 것은 한반도전역에 인위적인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리 민중의 평화통일의지를 기어이 꺾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총련은 성명에서 특히 여러 날에 걸쳐 지속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이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서 북에 대한 핵공격계획을 추진해온 부시가 6.15공동선언이행을 파탄시키고 핵전쟁을 일으켜 이 땅의 평화통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호소문에서 이번 전쟁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에 있어서 철저히 북을 겨냥한 핵공격연습이라고 주장하고 6.15공동선언에 동의하는 모든 청년학생들은 민족앞에 닥친 위험을 앉아서 보고만 있지 말고 반미반전이라는 공동의 구호를 들고 단결하며 투쟁해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앞장서자고 호소했습니다.

이같은 성명과 호소문은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단죄배격하는 내외 민중들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써 지극히 의롭다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호전집단은 내외 민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부터 이미 중단된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 보다 더 큰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합동군사연습은 그에 동원된 인원과 장비, 훈련목적과 방법 등을 볼때 철두철미 북침을 노린 대규모 핵전쟁연습입니다. 미국대통령 부시의 ≪악의 축≫발언

과 펜타곤의 대북핵전쟁위협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어느때보다 긴장되고 있는 가운데 그것도 지난 시기 따로 하던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통합해 대규모로 하는 것은 한미호전집단들이 한반도의 정세를 인위적으로 조장, 긴장시켜 기어이 북침전쟁을 도발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과 세계 평화애호민중들의 의사와 염원에 도전하는 용납못할 범죄행위입니다.

한미호전집단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은 그러지 않아도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과 6.15공동선언이행에 더 큰 난관을 조성하고 미국에 의해 한반도에 무겁게 드리운 핵전쟁위험을 가중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외 민중들이 이 범죄적인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것이고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각각 성명과 호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청년학생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이들 단체들의 성명과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반미반전투쟁을 보다 과감히 벌임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염원을 반드시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6일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26일

발전산업노조 기자회견

정부가 미복귀노조원 4000여명을 해임대상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발전노조가 전조합원들에게 사직서제출을 지시하는 등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발전산업노조는 25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이번 해고조치는 노사간 감정의 골만 깊게 해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대체인력만으로도 발전소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항의표시로 전조합원들에게 사직서제출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현재 1900여명이 업무에 복귀했다는 정부발표는 실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조건없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하며 연세대에서 농성을 벌이던 발전노조원들을 강제해산시키는 횡포를 감행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곧바로 힘으로 대응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발전노조파업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출범

한국공무원노조총연맹에 이어 두번째로 전국단위 공무원노조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은 23일 오후 경찰의 원천봉쇄를 피해 고려대에서 노조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해산으로 노조집행부를 선출하지 못해 당분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나가게 됐습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은 정부와 임금, 노동조합권에 대해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등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노동3권 쟁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부패와 관료주의를 타파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이루는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노조설립지도부에 대해 징계와 사법처리에 나서는 등 폭압에 광분하고 있어 노조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노조결성방해 등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투쟁은 물론 국제노동기구 제소 등을 통한 항의시위 등 연대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군사훈련반대 및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민집회

전국민중연대의 주최로 ≪대북전쟁연습 한미군사훈련반대 및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민집회≫가 23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집회에는 민중연대소속 회원들과 학생 등이 참가했습니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일치하게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은 사실상의 대북전쟁연습으로써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폭로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서총련 정종성임시의장은 합동군사훈련의 본질은 미국이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고 한반도를 영구식민지화하려는 시도라고 폭로하고 전쟁위기를 몰아오는 미국을 신랄히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북의 청년들은 지금 자원해 군대로 가고 각종 결의대회를 통해 전쟁책동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결의문은 대규모 전쟁연습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며 분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합동군사훈련은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하고 6.15공동선언으로 이룩된 민족의 화해와 통합, 통일의 기운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미국의 핵전쟁기도규탄, 북미공동커뮤니케이행, 반전평화운동전개 등을 주장하며 종묘공원까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은 통일의 방해자, 전쟁의 화근

각계에서 미국은 통일의 방해자, 전쟁의 화근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벌여놓은 이른바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으로 인해 지금 이 땅은 전쟁터를 방불케하고 있다. 호전광부시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뒤 북에 대한 핵공격계획까지 짜놓고 벌여놓은 사상최대의 합동군사연습은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다. 6.15공동선언이후 통일운동이 비상히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개의 대규모 전쟁연습을 사상 처음 통합해 실시하고 있는 것은 통일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고 남북대결을 부추겨 자주통일을 기필코 막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의 길에 들어서고 통일기운이 높아질때마다 이를 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해왔다. 미국이야말로 통일의 방해자이다.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그냥두고서는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반미반전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여 미국을 이 땅에서 내쫓기 위한 의로운 길에 한사람같이 나서야 한다.≫

전국연합의 한 인사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핵태세 검토보고서≫작성이후 감행되는 이번 전쟁연습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매우 위험한 전쟁연습이다. 미국의 무모한 전쟁연습으로 인해 이 땅에는 핵전쟁의 먹구름이 밀려들고 있다. 50여년전 6.25전쟁을 도발하고 수백만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미국이 이제는 핵전쟁을 도발해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까지 씌우려고 광분하고 있다. 끓어오르는 민족적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이야말로 전쟁의 화근이고 우리 민족과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원수이다. 우리는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핵전쟁광 부시의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만일 불량아부시가 이 땅에서 북침핵전쟁을 도발한다면 남북이 힘을 합쳐 전쟁의 화근인 미국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야 한다. 악의 뿌리 부시에게 죽음을 주어야 한다.≫

반미운동가 최창수씨의 글 ≪미국은 악의 원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임기수씨입니다.

9.11테러사건이후 부시는 입에서 뱀이 나오는지 구렁이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독설을 내뱉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악의 축≫망언이다.

부시는 연두교서에서, 지방유세연설에서, 서울행각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에서 북을 걸고 들고 있고 이북 체제까지 심히 모독중상하는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

부시의 이같은 행태는 히스테리적 광증을 연상케 한다.

부시의 ≪악의 축≫발언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

개념적으로 볼때 악이란 나쁜 감정 또는 행위로 남을 해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현세기 세계적 견해에서 악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도발, 테러행위 등을 통칭한다.

그러한 기초에서 북을 보자. 이북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사소한 침해나 군사적 강권을 행사해 본 적이 한번도 없다. 더욱이 미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행위는 고사하고 그 어떤 침해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악의 축≫을 이루자면 나라간에 상호 군사동맹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북은 이란, 이라크와는 군사동맹은커녕 아무런 연계도 없는 나라이다. 따라서 이북에 대해 그 무슨 ≪악의 축≫을 논할 명분조차 없다.

그런데도 부시가 이북에 대해 ≪악의 축≫이니 뭐니 하고 떠든 것은 ≪악의 축≫ 개념조차 모르는 정치미숙아, 저능아의 몰지각한 발상이다.

악의 왕초, 악의 제국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야말로 역사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막강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위협과 공갈, 전쟁불사로 인류의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우리 민족에게 가한 죄악만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민족분열은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고통이고 아픔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악한이다. 미국은 8.15직후 우리 민족이 광복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이 땅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우리에게 분단의 비극을 강요했다. 반만년동안 살아오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온 우리 민족은 미국때문에 분단의 비극을 안고 오늘까지 온갖 재난과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다.

미국이 이 땅을 강점한 때로부터 지난 50여년간 우리 국민과 겨레앞에 저지른 죄악은 말과 글로써는 이루다 치유할 길이 없다.

광복후 5년동안에만도 20여만에 달하는 우리 국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더욱이 6.25북침전쟁을 통해 수백만의 우리 민중을 학살한 미제의 만행은 천대만대를 두고도 씻을 수 없는 만고대죄이다. 그뿐이 아니다. 수천명의 광주시민을 살육케 하고 우리 여성들에 대한 강간, 살인, 폭행 등 미군이 자행한 범죄행위만도 지금까지 27만여건에 이르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도 수만명에 달하고 있다. 세인을 경악케한 ≪윤금이살해사건≫과 아이를 업은 여인을 백주에 집단윤간하고 살해한 ≪의정부집단윤간사건≫ 그리고 ≪임신부에 대한 강간살해사건≫과 ≪소녀집단윤간사건≫ 등 미군이 국민에게 자행한 야수적 만행을 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오죽하면 세상사람들이 주한미제침략군을 가리켜 ≪강간군단≫, ≪성폭행군단≫이라고 규탄했겠는가.

여기에다 이 땅에 독극물까지 마구 뿌리며 강토를 황폐화시키고 시장개방과 구조조정강요로 우리 국민의 명줄을 조이고 있는 것 등 미국이 자행하고 있는 범죄행위는 이루다 말할 수 없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첫째가는 방해자이며 평화의 파괴자이다.

우리 민족이 분단반세기가 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미국의 반통일책동때문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의 기미가 보일 때마다 이를 악랄하게 방해해왔다.

1972년의 역사적인 7.4공동성명과 1992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실천되지 못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더욱이 현시기 6.15공동선언이행에 장애를 조성하고 한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는 부시의 행위는 통일의 암으로써의 미국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뿐아니라 1천여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비롯한 현대적 대량살상무기를 대량적으로 전개해놓고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습을 연일 벌이면서 선제공격에 대해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미국이다.

저들은 방대한 대량살상무기로 이북을 끊임없이 위협하면서도 이북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 국방력을 가지는 것을 저들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드는 것은 강도적 논리이다.

미국은 바로 우리 국민과 민족에게 가해지고 있는 모든 악의 원흉이다. 저들은 우리 민족을 상대로 가장 악한 짓을 다하면서도 오히려 부시가 이북에 대고 ≪악의 축≫이라고 떠들고 있는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파렴치한 행위인 동시에 제 주제도 모르고 너덜대는 팔삭둥이 저능아의 몰상식한 발상이다.

****옳고 그름도 앞뒤도 가리지 못하는 정치미숙아, 저능아의 광기이다. 부시의 무분별한 광기는 우리 민족앞에, 세계앞에 전쟁과 파멸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민족과 세계가 3점짜리 저능아 부시에 의해 농락당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를 위해 부시의 히스테리적 광기는 당장 저지돼야한다.

미국에 의해 지구촌에서는 무고한 양민들이 무더기로 목숨을 잃는 참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래에 있은 것만 짚어봐도 1983년 그레나다에 대한 침공, 1986년 리비아에 대한 야수적 폭격, 1989년 파나마침공, 1991년 이라크에 대한 침략, 1995년 나토무력을 동원한 유고에 대한 공격, 그리고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략을 들 수 있는데요. 미국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조작자, 원흉이라고 할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4일~26일

만악의 근원,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지금 미국은 주한미군을 영구주둔시키기 위한 명분을 세우기 위해 한반도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키는 등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민중은 조국통일의 방해꾼이며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의 근원인 미군의 영구주둔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미군을 기어이 철수시키고야 말 겁니다.

≪만악의 근원,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오일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기어들었던 부시는 오산 미공군기지에 찾아가 북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망언을 늘어놓으면서 한국의 자유과 평화를 위해 이 땅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군사적으로 계속 장악하고 나아가서 이북을 침략하고 아시아를 정복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다시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 땅에 미제침략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은 한국을 수호하고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한반도분열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강점을 고정화하고 새 전쟁을 일으켜 이북과 아시아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부터 미국은 한국강점미군무력을 체계적으로 늘려왔습니다. 특히 부시호전집단이 집권한이후 한반도정세는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시호전세력의 북에 대한 노골적인 침략위협과 전쟁소동으로 한반도정세는 초긴장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주한미군으로 말하면 한반도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부시호전광의 죄행을 실행하기 위한 제1선의 무력입니다. 한반도문제해결의 기본열쇠는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는데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하는 것은 우선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실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주되는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미제침략군이 이 땅을 강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나라가 분열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반세기가 넘는 오늘까지 민족분열의 고통을 강요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분열되어 지난 6.25전쟁의 비극을 겪은 것도, 오늘까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한반도가 전쟁위험이 깃든 세계최대의 위험지대로 되고 있는 것도 다 미제침략군이 이 땅을 강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분열을 막을 수 없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하는 것은 한국강점 미제침략군이 전쟁의 화근이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면서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만명에 달하는 침략군을 이 땅에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 한반도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한국강점 미제침략군무력을 끊임없이 증강하고 각종 최신형 군사장비와 대량살상무기들을 연속 끌어들여 이 땅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켜 놓았습니다. 미제침략군은 북을 반대하는 군사도발과 대규모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면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휴전협정이후 지난 2000년말까지 미제침략군이 감행한 군사적 도발사건은 무려 15만여건에 달하고 전쟁연습은 1만여건에 달합니다. 미제침략군은 또한 최신형의 아파치 헬기와 신형 탱크, 장갑차들을 이 땅에 끌어들였고 각종 신형미사일들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북침전쟁을 실전에 옮기기 위한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제침략군은 ≪을지≫, ≪독수리≫, ≪연합전시증원연습≫ 등 대규모의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연례행사처럼 벌여왔고 지금은 ≪독수리≫와 ≪연합전시증원연습≫을 합쳐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북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악의 축≫망언과 때를 같이해 대규모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것으로 해 그 위험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이 벌이는 이번 전쟁연습이 실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미제침략군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언제 어느 시기에 전쟁이 터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반 사실은 주한미군이야말로 한반도에 새 전쟁을 몰아오는 불씨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당장 철수돼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민중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은 야수이고 인간살육집단입니다. 미제침략군이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후 그들에 의해 우리 국민들이 피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미제살인귀들에 의해 광복후 분단 45년 9월부터 1950년 1월까지의 기간에만도 무려 30만명의 무고한 민중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미제야수들의 살인귀적 본성은 6.25전쟁시기에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전쟁을 도발한 미제야수들은 1년동안에만도 이 땅에서 백만명이상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했고 전쟁3년간 남북전역에서 300만명이 넘는 양민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뒤로도 살인귀들의 야수적 만행은 휴전후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인, 폭행, 방화, 강간, 강도행위들이 미제침략군의 발길 닿은 곳마다에서 감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강점후 지금까지 세상에 드러난 미군범죄건수만도 무려 27만여건에 달합니다.

미제침략군에 의한 생태환경의 파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제침략군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 민중의 불행과 고통의 화근으로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하루빨리 철수해야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주되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6.15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기로 온 세계에 선포한 민족자주선언이고 통일지향선언입니다. 그런데 부시호전집단은 처음부터 6.15공동선언을 반대해나섰고 그 이행을 노골적으로 차단해보려고 필사발악하고 있습니다.

부시호전집단은 반북강경정책, 반북전쟁책동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6.15공동선언이행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시는 이번 한국행각시 휴전선일대와 주한미군기지들에 찾아가 북침전쟁열을 고취하면서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제창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한반도에서 새 전쟁을 기어코 일으키려는 전쟁광신자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실은 부시의 대북전쟁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고서는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나라의 분열의 장본인, 전쟁의 화근, 민중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 민족통일을 가로막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반미자주화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미제침략군을 이 땅에서 내쫓고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4일~26일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26일

조선반핵평화의사협회 창립 10돐 기념토론회

조선반핵평화의사협회창립 10돐 기념토론회가 25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조선반핵평화의사협회 최창식위원장과 협회성원들, 반핵평화를 위한 조선원자탄피해자협회 일군들과 원자탄피해자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연설들과 토론들이 있었다.

각지에서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의 합동군사연습을 규탄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벌려 놓은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폭로단죄하는 현장규탄집회들이 조선 각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6월4일차량공장, 김형직사범대학, 사리원지질대학에서 진행된 집회들에서 연설자들은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제와 그 주구들이 전례없는 전쟁연습을 감행하고 있는것은 우리의 생명이며 생활인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고 우리 로동계급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빼앗으려는 극히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라고 규탄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놓으면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발광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는 우리를 건드리는 침략자들에 대해서는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무자비하게 타격하고 섬멸할수 있는 멸적의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작품

평양에서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일부 연습장면들을 보고 외국의 관광고찰단, 기자단들이 크나큰 감동을 표시하고 있다.

일본 오피스 투 완주식회사 ≪아리랑≫관광고찰단 단장 가라끼다 유지는 지난 시기 조선에서 집단체조를 여러차례 보았지만 이번처럼 규모가 크고 훌륭한 작품은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작품에는 유구한 력사를 가진 조선민족의 전통이 잘 반영되여 있다고 말하였다.

일본 해외려행선전쎈터≪아리랑≫관광고찰단 단장 구리하라 다께시는 지난해 10월 조선에 왔을 때 다음해에 ≪아리랑≫을 주제로 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몇달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이처럼 높은 수준의 작품을 준비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중국 료녕성국제려행사≪아리랑≫관광고찰단 단장 김무성은 짧은 연습장면들을 보면서 조선민족의 단결성과 위력을 느낄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일본 ≪아리랑≫광보기자단 단장 기무라 히데도시는 사람의 힘으로 이런 거대하고 우아하고 황홀한 작품을 창작한다는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본에 돌아 가면 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 많은 사람들이 이 공연을 보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불의의 침공을 노린 전쟁연습소동

≪로동신문≫ 26일부는 내외호전광들이 벌려 놓은 이번 통합전쟁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침공을 목적한 침략전쟁소동이라고 규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호전광들이 통합전쟁연습을 그 무슨 ≪방어훈련≫으로 광고하고 있는것은 이번 전쟁연습의 공격적성격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범죄적목적밑에 통합전쟁연습을 벌려 놓았다는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호전광들은 심히 오산하고 있다.

조선인민은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다. 강철의 령장의 손길아래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자존심이 강철 같고 그 누구와도 맞서싸워 이길수 있는 배짱과 힘을 가진 강대한 군대와 인민으로 자라났다.

미제가 우리를 먹어 보겠다고 으르렁대고 있는 오늘 조선인민은 혁명의 보루를 무적필승으로 다진 우리 당의 선군정치가 얼마나 정당한것인가를 절감하고 있으며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원쑤들과 끝까지 싸워 천백배로 피값을 받아 내고야 말 의지로 심장을 끓이고 있다.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자기들을 파멸에로 몰아 가는 자멸행위로 될것이다.

죽음을 각오한 우리를 당할 자 없다

≪로동신문≫ 26일부는 만일 미제침략자들이 새로운 조선전쟁의 포성을 울린다면 그것은 아메리카장송곡으로 변할것이며 ≪유일초대국≫의 비참한 종말을 가져 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우리를 ≪악의 축≫으로 선포한 부쉬의 호전적망발에 뒤이은 그의 남조선행각과 전쟁준비태세검토,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와 공개, 이에 뒤따라 감행되는 최대규모의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은 미제의 침략적인 세계전략, ≪반테로≫전략의 주공목표가 우리 공화국이며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부쉬호전집단의 광증이 도수를 넘어 극한점에 이르고 있다는것을 말해 준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미국의 호전광들이 핵공격위협, 전쟁소동으로 우리를 놀래우고 위압하려고 획책하고 있지만 오히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민족자주정신은 더욱 높아 지고 멸적의 기상은 하늘에 닿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형의 장군, 희세의 령장을 위대한 령도자로,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있다.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유사시 일단 명령만 떨어 지면 자기의 모든것을 총 동원하여 침략의 무리들을 모조리 무주고혼으로 만들것이다.

전민무장화가 실현되고 온 나라, 전 지역이 금성철벽, 난공불락의 요새로 되여 있는 우리 나라는 그 어떤 침략자들이 달려 들어도 무서울것이 없으며 끄떡하지 않을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호전광들의 군사적광증을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 격으로 놀아 대는 자들의 군사유희로 밖에 보지 않는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는 이번 기회에 미제호전광들에게 우리의 총대맛을 보이고 결판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울려 나오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은 대미분노와 복수심에 세차게 높뛰고 있다. 부쉬호전집단이 미국의 운명과 장래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독단주의와 패권주의악몽을 털어 버리고 대조선강경압살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북침공중전쟁연습과 공중정탐행위

군사소식통에 의하면 미제와 남조선의 호전광들이 남조선지역 상공에서 북침공중전쟁연습을 벌려 놓고 있다.

여기에는 미본토와 해외기지들로부터 숱한 전투폭격기들과 특수작전기, 지휘기들이 동원되고 있다.

24일 해외기지로부터 리륙한 ≪KC－135≫공중급유기가 동쪽해상 상공에서 지상지원, 공중차단연습에 돌아치는 전투기들에 공중급유하였다. F

또한 3~4대씩 편대를 지은 ≪F－15≫, ≪F－16≫전투폭격기들이 수십차에 걸쳐 남조선강점 미공군기지로부터 번갈아 출동하여 지적된 대상물들을 신속히 ≪타격≫하는 종심대상물타격연습을 벌렸다.

21일부터 25일까지 공중정탐행위에 동원된 전략 및 전술정찰기는 무려 40여대나 된다.

이러한 전쟁연습과 공중정탐행위는 북침전쟁을 위한 실동연습, ≪시험전쟁≫으로서 미제가 임의의 시각에 공화국북반부의 전략적대상물들을 공중으로부터 불의에 타격할것을 노린 침략전쟁연습이다.

조선로동당 정책 지지 끼르기즈스딴정당

끼르기즈스딴공산주의자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아. 마쌀리예브와 끼르기즈스딴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클라라 아쥐베꼬바가 16일과 18일 이 나라 주재 조선대사를 만났다.

아. 마쌀리예브위원장은 석상에서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랜 기간 조선로동당을 령도하여 오시면서 영광으로 가득찬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은 세계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조선식사회주의를 꿋꿋이 고수하고 빛내여 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조선의 사회주의에서 큰 힘을 얻고 있다고 말하였다.

끼르기즈스딴공산주의자당은 언제나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지지할것이며 조선로동당과의 친선과 협조를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위원장은 강조하였다.

클라라 아쥐베꼬바제1비서는 석상에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건설투쟁에서 단 한번의 실수와 오유도 없이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세계≪유일초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웠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의 사회주의는 세계의 모범으로 되고 있으며 세계공산주의자들의 희망의 등대이라고 말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합동군사연습을 규탄

벌가리아와 우간다단체들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침략적인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였다.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와 조선통일지지벌가리아위원회는 20일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에서 이전에 진행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릉가하며 조선반도에 엄중한 정세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간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는 21일 성명에서 자기들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그만두고 남조선으로부터 침략무력을 지체없이 철수시킬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또한 남조선호전세력이 동족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책동에 합세하는것을 그만두며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를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혁신적인 안목으로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

로동신문 사설 - 주체91, 3월 26일

우리 당은 빛나는 계승과 혁신으로 조국번영의 전성기를 펼쳐 나가는 위대한 당이다. 오늘 우리 당은 새 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요구를 반영한 혁명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전당, 전국, 전민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이 땅우에 21세기 주체강국을 일떠세우자면 모든 일군들이 혁신적인 안목으로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낡은 관념을 버리고 새롭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혁신적인 안목을 지닌다는것은 기성의 관념이나 재래식사고에서 완전히 벗어 나 모든것을 새롭게 보고 대하며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무슨 일이나 발전적견지에서 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진다는것이다. 첨단과학기술에 토대하여 나라의 경제를 건설하고 과학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며 기발한 착상과 대담한 실천으로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해 나가는 일군이 혁신적인 안목을 지닌 참된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시대는 발전하며 혁명과 건설의 조건과 환경은 끊임없이 달라 진다. 경제사업에서 끊임 없는 혁신과 앙양을 일으키자면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변화된 조건에 맞게 혁신적인 안목을 지니고 일해 나가야 한다.

21세기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세기이다. 오늘 현대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전에는 상상할수 없었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기계설비들의 갱신주기가 비할바없이 빨라 지고 정보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생산부문들이 출현하고 있다. 전통적인 생산부문이나 생산방법에만 매달리는 구태의연한 안목으로는 새로운 경제적성과를 이룩할수 없으며 나라의 경제를 전진시킬수 없다. 고정격식화된 틀에서 완전히 벗어 난 새로운 안목을 가져야 세기적인 변혁이 이룩되는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나라의 경제력을 튼튼히 다져 나갈수 있다.

새로운 안목에서 새로운 혁신, 새로운 성과가 창조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혁신적인 안목으로 모든 경제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조건에서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다. 우리의 투쟁과업은 비할바없이 방대하지만 우리에게는 부족한것, 모자라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현실은 모든 경제사업을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더욱 깐지게 혁신적으로 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혁신적인 안목이 있어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생산과 경영을 과학적으로, 효률적으로 해나가며 기발한 착상과 대담한 실천으로 더 높은 성과를 창조할수 있다. 고칠것은 대담하게 고치고 새롭게 창조할것은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혁신적인 안목으로 모든 경제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보다 큰 경제적성과를 달성할수 있으며 경제강국을 더 빨리, 더 훌륭히 건설해 나갈수 있다.

우리는 모든것이 어려운 조건에서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오늘의 현실적조건을 똑바로 보고 혁신적인 안목으로 생산과 건설을 진행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새 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요구를 구현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경제정책들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끊임없이 현지지도하시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나라의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현명한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풀어 나가는 숭고한 모범을 보여 주고 계신다.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수 있게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할데 대한 방침, 인민경제를 정보화, 현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개건방침,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할데 대한 방침, 생산과 건설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할데 대한 방침, 종자혁명방침과 두벌농사방침, 국토건설과 토지정리방침 등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경제정책들은 그 어느것이나 변화된 환경과 현실적조건,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지난 몇해동안 토지정리와 같은 대자연개조사업이 힘 있게 진행되고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인민생활에 복무하는 현대적공장들이 수많이 일떠섰으며 경제건설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 난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가 얼마나 정당하고 현명한가를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현실은 혁신적인 안목으로 경제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온 나라에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폭풍을 일으킬수 있으며 새 세기 경제강국건설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 주고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정책을 경제강국건설의 전투적기치로 틀어 쥐고 혁신적인 안목에서 모든 경제사업을 진행해 나감으로써 뜻 깊은 올해를 경제강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경제정책의 정당성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모든 사업을 **김정일**동지식으로 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희세의 실력가형의 위인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경제정책에는 새 세기의 요구와 나라의 경제형편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전환의 길을 밝히시는 비범한 창조의 예지가 깃들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과정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고 계신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받들어 나갈 때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은 오늘 우리 인민이 지닌 절대불변의 신념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경제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식으로 경제사업에서 종자를 확고히 틀어 쥐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며 대담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 공장을 하나 건설하고 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경제적타산을 바로 하고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새것에 민감하고 언제나 새것을 지향해 나가는 진취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일군들은 누구나 당경제정책의 요구를 똑똑히 알고 어떻게 하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을 혁신적으로 해나가겠는가 하는것을 늘 사색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에게는 새것에 민감하지 못하고 낡은것을 고집하는 사업태도가 있을수 없다.

현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시대이다. 새것을 지향하는 진취적인 태도는 새 기술을 적극 받아 들이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애 쓰는데서 나타나게 된다. 모든 일군들은 현대적인 새 기술을 받아 들여 생산도 발전시키고 내부예비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실리도 보장하는 원칙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발전을 위한 전망계획을 똑똑히 세우고 무조건 집행해 나가는 제도를 세워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의 세계적추세와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중요하고 절실한 부문과 대상들, 그중에서도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빨리 은을 낼수 있는 대상들부터 개건하는 방법으로 공업의 기술적개건과 현대화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생산과 건설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해나가야 한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공법의 요구대로 생산과 건설을 진행하며 협동농장들에서는 지대적특성과 농작물의 생물학적요구에 맞게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오늘의 자력갱생은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기술혁신운동을 힘 있게 벌려 자체의 힘과 지혜로 당이 맡겨 준 전투적과업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 들여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기계설비를 만들어 낸 라남로동계급의 혁신적인 일본새가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새것을 받아 들이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보수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불사르며 끊임없이 새 기적을 창조한 1950년대의 그 투쟁정신으로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혁신적인 안목으로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는데서 현실속에 들어 가 대중의 혁신적지향을 깊이 체득하는것이 중요하다.

들끓는 현실은 혁신의 활무대이며 인민대중은 창조와 변혁의 담당자이다. 발전하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 가 대중의 혁명적지향을 온몸으로 느낄 때 혁신적인 안목으로 당의 경제정책을 집행해 나갈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는 생산현장에서 자기 사업을 새롭게 연구하고 설계하며 실천해 나가야 한다. 자기 단위에서 낡고 뒤떨어 진것들을 하나하나 찾아 내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담하게 고쳐 나가야 한다.

새것을 지향하는것도 인민대중이며 새것을 창조하는것도 인민대중이다.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그들의 창조적의견을 적극 받아 들여 생산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한다. 특히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기술자들속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기술안, 혁신안들을 적극적으로 실현시켜야 한다.

혁신적인 안목으로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이며 당의 혁명적경제정책의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자립경제토대가 은을 내게 하는 비결도 실리보장에 있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는 중요한 방도도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는데 있다. 계획을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실성 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경제적타산을 앞세우고 경영활동을 면밀히 짜고 들어 생산을 실제적인 리익이 나게 하여야 한다.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제품의 원단위소비기준을 결정적으로 낮추고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자기 단위의 경제사업을 어디까지나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을 다그치는데 지향시키고 복종시켜 나가는 원칙에서 해나가야 한다.

혁신적인 안목으로 일해 나가자면 높은 실력이 있어야 한다.

세계과학기술발전추세를 잘 알고 새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진행해 나갈수 있다.

누구나 학습을 꾸준히 하여 시야를 부단히 넓혀 나가야 한다. 선진적인 기술과 경험을 창조하고 받아 들일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과학기술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의 혁명적경제정책관철에서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경제강국건설의 운전대를 틀어 쥔 혁명의 지휘성원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의 사상관점과 투쟁기풍, 일본새에서 혁신이 일어 나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날수 있으며 당의 경제정책이 철저히 관철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경제사업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든 경제사업을 설계하고 완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누구나 위대한 **김정일**동지식으로 면밀하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일판을 전개해 나가며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 나가는 정열적인 사색가, 창조의 능수, 용감무쌍한 지휘관이 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신적인 안목으로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해 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것이다. (끝)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국통일대강을 마련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32회
학사 리광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26일

안녕하십니까? 전번시간까지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신데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국통일대강을 마련하신데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가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큽니다. 그것은 이 시기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대강을 마련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린 것도 통일대강이 마련된 것을 떠나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혁명투쟁의 성과여부가 그 운동의 기초해 놓여있는 사상과 노선, 정책에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조국통일운동에서 일어난 전환적 국면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통일대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신 조국통일대강은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절대적인 충성의 빛나는 결정체입니다. 돌이켜보면 장장 수십성상 조국통일을 위한 길위에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함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서 계시였습니다. 두분의 위대한 수령께서는 고락을 함께하시며 조국통일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의논도 하시고 통일조국의 미래도 설계하시면서 숭고한 혁명적 의리의 서사시를 아로새겨 오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불철주야의 노고를 바치실 때 언제나 수령님의 가장 가까이에는 혁명전사의 고결한 자세로 충직하게 보좌하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었고 수령의 위업을 받들어 나가시는 장군님의 곁에는 후계자를 뜨겁게 위하고 아끼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과 후계자 사이에 맺어진 이러한 혁명적 의리는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온 원동력이였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의 명맥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는 위대한 현실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충성과 의리가 낳은 고귀한 결실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인민이 어버이 수령님을 잃고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때 분열주의 세력은 우리의 그 무슨 변화를 운운하면서 민족의 운명을 농락하려고 했습니다.

그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를 향하여 철의 선언을 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통일을 위해 김정일이 있다. 7천만에게 통일을 주지 못하면 김정일이 아니다.≫

이것은 어버이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받들어 민족분단의 역사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고야 말 백두산 장군의 불타는 충성의 맹세였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지난 6년간은 위대한 장군님의 이처럼 불타는 충성의 맹세가 조국통일투쟁의 대서사시적 화폭으로 펼쳐진 승리와 전진의 6년이였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절대적인 충성은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업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통일대강을 마련하시어 그것이 통일강성대국 건설역사에 영원히 빛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업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하신 조국통일대강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한생을 바쳐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오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며 조국통일의 주체적 노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조국통일대강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조국통일3대헌장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8월에 발표하신 고전적 노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어버이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해 주시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어 조국통일의 근본원칙들과 방도들을 백과전서적으로 밝히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민족공동의 완전무결한 통일대강입니다.

우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그 자체의 완벽성으로 해서 7천만 온겨레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통일대강입니다.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조선사람이 주인이 되어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것, 그리고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종교인이건 가리지 말고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에 이 원칙은 주체61(1972)년 7.4공동성명을 통해서 북과 남이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통일대강으로, 조국통일의 근본 초석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전체 조선민족을 하나로 굳게 단합시키기 위한 민족대단결의 총서입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주체82(1993)년에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원칙, 이념적 기초와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힌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강령입니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성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할 것을 호소한 이 강령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전체조선민족을 반일민족해방투쟁에로 불러일으킨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속에서 날이 갈수록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국가를 세울 것을 밝힌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사상과 정견이 다른 민족의 성원들을 다 같이 살리고 북과 남은 물론 유관국들에도 손해가 없게 하는 그런 가장 완성된 통일방안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립해 주신 조국통일 3대헌장은 더 보탤 것도 없고 덜 것도 없는 완전무결한 통일강령으로써 온 겨레가 통일의 그날까지 추켜들고 나아가야 할 만능의 통일열쇠로 되고 있습니다.

≪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통일을 위해 김정일이 있다. 7천만에게 통일을 주지 못하면 김정일이 아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조국통일대강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다음으로 민족대간결 5대방침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4월 18일 역사적인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 쉰 돌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서한에서 우선 어버이 수령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역사적인 4월 남북연석회의가 가지는 의의를 밝히시고 수령님께서 민족대단결위업에 쌓아올리신 업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집대성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이 유무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계층이 민족공동이 이해와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 데 대한 사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버이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새롭게 정립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와 함께 어버이 수령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제시하신 민족이론에 기초하여 그이의 민족대단결사상의 정당성과 그 이론실천적 의의를 과학적으로 논증하시고 민족대단결위업에 쌓아오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총화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버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쌓아오신 민족단합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고수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다시금 천명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서한에서 특히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과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맞는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첫째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둘째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단결하며 셋째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넷째 외세의 지배와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다섯째 온 민족이 서로 접촉대화하고 연대연합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대단결5대방침에서 특히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서 변함없이 광폭정치를 실시하여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조국통일의 한 대오에서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시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손을 잡은 사람들과는 조국통일의 길에서 뿐 아니라 통일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도 힘을 합쳐 나갈 것이며, 조국통일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족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할 것이라 하시었습니다. 이것은 온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와 한없이 숭고하고 폭넓은 도량과 포옹력, 대용단의 표시입니다.

이러한 도량과 포옹력, 대용단은 오직 어버이 수령님의 주체적인 민족대단결사상과 노선,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 받으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언제나 수령님과 함께 계시면서 불멸의 업적을 수놓아 오신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며 도덕의리의 최고 귀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만이 지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민족대단결위업,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민족의 만년재보로, 조국통일위업완성의 튼튼한 밑천으로 정립하시어 북과 남, 해외의 7천만 겨레에게 운명개척의 사상정신적 지침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통일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대단결의 새 전기를 마련하신 데 대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방부, 끝내 미국 F15로 내정

국방부가 다수 국민 반대여론과 정부내 일부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전투기(FX)로 미국 보잉의 F15를 사실상 내정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이같은 국방부 결정에 대해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국제소송 등을 검토중이며, 사회시민단체들도 최종결정권자인 김대중대통령에게 국방부 결정을 재가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해 파문이 급속히 커질 전망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오전 ≪지난 23일부터 F15 등 4개 기종에 대해 행한 국내 4개 기관별 1단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F15와 라팔이 오차범위 3%안에 들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F15와 라팔의 점수차가 오차범위인 3%이내에 들어 한미동맹관계 등 정책적 요소에 따라 기종을 결정하는 2단계 평가단계로 넘어감에 따라 미국의 F15가 사실상 선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관계자는 ≪2단계 평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이후 확대획득 회의를 거쳐 기종을 최종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국방부 발표는 27일 오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기 직전에 일방적으로 나온 것이어서, 정부내에서도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NSC회의는 회의 개최 전부터 부처간 이견으로 격론이 예고됐었다.

김동신 국방장관은 노후전투기 교체시기를 놓치면 군 전력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는 점을 들어 기종선정과 FX사업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이다.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도 국가의 대외신인도 문제를 들어 원칙적으로 추진에 찬성하는 입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나 신건 국정원장, 정세현 통일부장관 등은 일단 사업연기 후에 다음정권에서 기종을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부처간 이견이 팽팽하자, 국방부는 회의전 서둘러 F15 내정 사실을 흘림으로써 F15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려 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부는 NSC 회의 직후인 27일 오후 F15내정을 공식발표했다.

이같이 부처간 갈등이 커진 이유는 프랑스의 강력한 반발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내에서 FX사업 연기를 주장하는 또다른 이유는 26일 한총련소속 학생들이 F-15에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국방부에까지 진입해서 벌이고 연일 FX사업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민들의 FX사업에 대한 불신과 반미감정

고조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방부가 F15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상임의장 홍근수 목사 등)는 27일 낮 12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F15 선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을 직권남용 협의로 군 검찰과 국방부 합동조사단에 고발했다. 고발이유는 최실장이 무기도입을 총괄지휘하는 지위를 남용해 F15에 불리한 내용을 빼라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조주형 대령의 증언에 대해 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협의회는 또 ≪국방부가 F15 도입을 결정한 만큼 앞으로는 국방부가 아니라 청와대를 상대로 F15 선정 철회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F15 구입은 국방부가 내정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만 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협의회는 따라서 김대중대통령을 상대로 재가를 하지 않도록 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손봉석기자
프레시안 2002/03/27

발전노조, ≪파업은 계속된다≫

해고 위협에도 복귀율 낮아, 업무 복귀자 다시 파업 동참

발전산업노조의 파업대오가 회사측이 대량해고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율이 늘지 않 고 업무에 복귀했던 조합원들이 다시 파업에 동참하는 등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4월2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결의한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했던 조합원 가운데 다시 파업에 가세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등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무색한 상황이 다.

◇ 업무복귀자 다시 파업동참=27일 남부발전 소속 무주지부 조합원 35명은 언론과 사측 에 속았다며 회사를 빠져나와 파업동참을 선언했다. 4000명 가까운 해고 방침 발표 이후 있 었던 약간의 동요도 25일을 고비로 진정되며 복귀율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7일 전체조합원 5591명 가운데 이날 오전 8시 현재 업무복귀자는 1899명(34%)이 며 이는 복귀의사 표명만하고 복귀하지 않은 허수집계는 제외한 수치라고 밝혔다. 하루전 (26일) 밝힌 복귀율(33.5%)을 인정하더라도 사실상 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허수를 제외했 다지만 정부집계에 포함된 파업 미참여조합원 180명을 제외하면 실제 복귀율은 30.7%로 떨 어진다. 복귀율과 관련 노조는 26일에도 복귀율이 18%라고 밝혀 사측과 큰 차이를 보였었다.

◇ 인권침해 심각=경찰이 지난 24일 연세대에서 농성을 벌였던 발전노조원을 해산시키는 인권침해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서인천 화력발전 조합원 가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합원 9명에 대해 포승 줄과 고무신을 신도록 강요했다. 종로경찰서에 연행됐던 오명훈씨도 강압적인 복귀강요에 ≪경찰은 복귀를 강요할 수 없고 강요받을 이유도 없으므로 복귀의사를 말할 수 없다≫고 거부함으로써 48시간 동안 구금됐 다가 석방됐다.

이에따라 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이 ≪같은 사유로 다시 연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법을 무시한 불법 연행과 구금도 계속하고 있다며 노조원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 다.

현행 형사소송법 200조는 ≪긴급체포시 동일한 사유로 체포할 수 없고 체포영장없이는 체 포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발전노조는 복귀율이 저조함에 따라 당초 공개키로 했던 복귀자 명단공개를 유보하 기로 했다.

이철원기자
노동일보 2002/03/27

시민단체 ≪발전노조 파업≫ 지지선언

시민단체들이 한달 넘게 진행중인 발전노조 파업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여성연합 등은 민주노총과 발전노조와 함께 27일 오전10시 30분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력산업 민영화 유보와 친환경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매각을 비롯한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유보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새로운 전력산업 구조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교사 790명 시국선언

발전노조와 공무원노조 출범 등으로 노정이 극한대립으로 치닫는 가운데 전남지역 초.중.고 교사 790명이 시국선언을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아울러 26일 발표된 전남지역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어서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교조 소속인 이들 교사들은 이날 발표한 시국선언에서 ≪발전노조의 파업 투쟁과 공무원노조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는 이들의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교사들은 이어 ≪정부는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산업 매각 방침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토론을 거쳐 무엇이 국민생활과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통일조국의 후세들에게 가장 후회 없는 결정인지를 신중하게 따져볼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농부에게 씨앗과도 같은 기간산업을 외국자본과 재벌에게 파는 일은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국민 다수의 생각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에 전남 지역 교사들은 발전산업 노동자들과 공무원노조의 눈물겨운 투쟁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며, 양 노조의 투쟁을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오마이뉴스 2002/03/27

내가 진짜 진보, 노무현씨와는 길이 다르다

2002년 대선에 출마하겠다, 민주노동당의 개혁적 정책노선을 뚜렷이 밝혀

권영길대표

시민의신문 · NGOtimes.net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안 · 진보정치 초청토론회에서 진보정치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대표가 《2002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히고 민주노동당의 개혁적 정책노선을 뚜렷이 밝혔다. 권대표는 경제 · 언론 · 환경 부문에서도 개혁적인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독자적 후보를 통한 정치 진출 전략을 밝혔다.

또한 권영길 대표는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노무현 후보의 정책노선을 《사이비》라고 비판하고 《진짜 진보가 여기있다》고 표현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노무현씨가 집권하면 민노당의 집권을 앞당길 것으로 본다》며 《노무현씨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권영길의 길과 노무현의 길은 다르다

민노당 안팎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노무현 돌풍에 대해 권대표는 《권영길의 길과 노무현의 길은 다르다》는 말로 김대중 정부의 실정과 연장선에 있는 노무현 후보의 상대적 개혁노선이 민노당과 다름을 지적했다. 권대표는 《이인제 후보가 《노무현씨는 민주노동당 후보》라고 발언한 것에 노무현 씨도 답변을 했어야 했다》며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말한 것은 곧 김대중 정부의 IMF실정, 일방적 금융개방, 공기업 사유화 등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권대표는 《노무현 후보가 집권해도 김대중 정부와 같은 명확한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며 《그 때가 되면 사이비 진보와 진짜 진보가 구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권대표는 《노무현씨가 집권해야 민노당 집권도 앞당길 것으로 본다》며 《노무현씨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민노당으로서는 이회창 총재 집권저지라는 측면에는 노무현 후보가 부합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후보보다 노무현 후보의 집권이 1인2표제를 통한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가능케 하리라고 전망한다. 또한 민노당은 민주당의 계보를 잇는 노무현 후보의 한계가 모두 드러날 때 진보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전략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혁과 군축 정책으로 복지 예산 늘일 것

권대표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박탈은 우리사회가 80대20이 아니라 95대5 사회임을 보여준다》고 표현하며 조세정책과 군비축소를 통해 노동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대표는 이자제한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과 함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 공공임대주택 100만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 밝히고 군병력 10만 감축,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감축, 재원을 확보해 이를 사회보장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사회당과 결국 통합할 것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당과의 통합 문제에 관해서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보수 정당의 야합은 밀실에서 이뤄지고 속도도 빠르지만 진보정당은 원칙적이고 절차적인 이념 및 강령 · 정책 정리가 필요해 속도가 붙지 않을 뿐이라는 것. 사회당의 반조선노동당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논의 중이며 양당 상임 집행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또한 권대표는 오래전부터 조선일보와 월간조선 등 조선일보 자매지의 인터뷰를 거부해왔다며 《한사람만 부각되고 권영길이 안티조선 운동의 핵심이라고는 이야기되지 않더라》며 웃었다. 권대표는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당하며 오히려 한나라당 비난여론에 밀려 정부가 세무조사를 중단한 것은 옳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언론노조 출신으로 언론의 자율적 개혁에 기대를 걸지 않고 있으며 정간법 개정과 신문고시 강화 등 운동을 통해 가능하다》고 언론관을 밝혔다.

시민운동과 진보정당, 전략적 · 실천적 연대할 것

시민 · 노동단체를 포함해도 진보진영의 영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운동이 오히려 제도정치 안에서 개혁운동을 추진하다보니 진보정치 활동폭을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지만 시민운동의 낙선운동은 의미있었다》고 평가했다.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실장은 《민노당이 새만금사업 반대를 선언했음에도 민주노총의 농업기반공사 등 단위노조는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하자 《분명 충돌하는 지점은 있지만 결국 환경문제도 조합원 ·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의 조율과 연대도 전략적 차원이 아닌 실천적 차원에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후보 거의 확정됐다. 울산 주력, 서울 등 의미있는 선거 이끌 것

권대표는 또한 《울산을 비롯한 서울 · 인천 · 경기 · 광주 · 울산 · 부산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 ·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자를 이미 선정했다》고 밝히고 《울산시장의 경우 민주노총과 민노당이 공동으로 민노당 김창연 울산지부장을 후보로 확정했다》며 울산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을 밝혔다. 또한 한 지역에서 진보진영의 후보와 자치후보들이 겹칠 경우 예비경선을 치러 진보진영 후보를 반드시 단일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미진기자
시민의 신문 2002/03/27

진짜 용(用)미하기 반(反)미로 구(求)미해야

한상열목사, 전쟁반대 8일간 단식

한반도전역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던 21일(목)부터 마지막날인 27일(수)까지 통일연대 상임대표 한상열 목사는 《전쟁반대, 공동선언 실현》을 외치며 서울시 주한미국대사관앞에서 단식을 진행, 8일간의 단식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해 53일간 단식을 진행한 적이 있는 한목사는 《단식만큼은 하지 않으려 했으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참았던 단식을 끝끝내 진행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목사는 중병에 걸려 위험한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명약은 《우리민족끼리》라고 피력하며 《굴(屈)미, 친(親)미를 떨쳐버리고 진짜 용(用)미하기 위해서라도 회(悔)미, 철(撤)미, 반(反)미투쟁으로 구(求)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8일간의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 한목사의 일정은 공동선언을 상기하기 위해 6시 15분에 일어나 주미대사관을 돌면서 《주한미군 물러가라》는 기도를 한후 10시까지 1인시위, 그후 농성으로 이어졌다.

2시부터 시작된 기자회견은 사회각계 원로들이 참석, 전쟁반대와 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단식농성을 진행한 한목사를 격려했다.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임동원 특사가 북에 가서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에 진전을 기대한다》며 미국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조성에 임특사가 큰 기여를 해주길 당부했다.

단식을 진행한 한목사에 대해 수고했다고 전하는 진관스님은 《미국이 남북통일을 방해하더라도 우리민족끼리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꼭 통일을 이룰 것이다》며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남측정부의 통일관련 정책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통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미국의 요구에 무릎을 꿇은 정부의 나약함이 부끄러워 이제껏 투쟁을 진행해왔다》며 《그 어떤 협박과 공갈에도 굴하지 않고 한반도에서의 미국 전쟁책동을 더이상 두고보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백영순기자
유뉴스 2002/03/27

범청학련 구속자 대책위 발족

26일 오전 11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범청학련 관련 구속자 석방을 위한 제 사회단체 기자회견과 발족식≫이 진행되었다.

기자회견과 발족식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민가협, 민화련, 전농,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한총련, 통일광장 선생님들과 장기수 선생님들, 자통협의 홍근수 목사님,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장님,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의장님, 황혜로 범청학련 방북대표,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대책위원회,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전대협동우회, 범청학련 남측본부 후원회,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덕성여대 총학생회, 연행자 가족들이 참석하였다.

많은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은 황혜로 범청학련 방북대표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상황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22일 오후 3시를 전후로 하여 범청학련 남측본부 김혜신 사무국장, 범청학련 남측본부 후원회 김영호 사무국장과 도영경 후원회원, 임인섭 후원회원이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었다. 그리고 관련하여 김광수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가택압수수색이 있었다. 현재 김혜신 사무국장 등 4명은 국정원에서 5일 째 조사를 받고 있으며 어제 25일에 있었던 영장 실질심사 결과 전원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이어 민가협 조순덕 상임의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으며, 기자들의 질의응답이후 곧바로 ≪범청학련 관련 구속자 석방 대책위원회≫ 발족식이 이어졌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의장님은 범청학련 관련한 구속자들의 조속한 석방, 범청학련 남측본부 이적규정 철회를 위해 모든 사회단체, 인사들이 합심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발족 배경과 이후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후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의장님과 민가협 어머님들, 전대기련, 국민대학교 학생들과 연행자 가족들의 국정원 항의방문 투쟁이 있었다.

민족통신 2002/03/27

정권 장악이 한반도 평화보다 중요한가

임특사 방북 바라보는 야당의 단견(短見)

한반도 전쟁 위기와 야당의 정치적 상상력

최근 이북과 관련한 부시 행정부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 1월 말 이북을 ≪악의 축≫ 국가로 지목하더니 이달 들어 이북을 미국의 선제 핵공격 대상국으로 지명했고, 북미 합의에 따른 ≪이북의 핵동결 준수≫를 보증하지 않겠다며 전임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어버렸다. 특히 ≪핵동결 준수≫ 보증 거부는 북미 관계 개선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합의의 파기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길한 전조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다시 한번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이미 미국은 지난 94년 이북과의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또 5027계획이다 뭐다 해서 정교한 한반도전쟁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고 있으며 매년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부시 행정부 일각에서는 이북의 미사일 수출을 막기 위해 공해상에서 이북 선박을 강제 수색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상황에서 임동원 특보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이북을 방문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그런데 임 특사 방북에 대한 야당과 일부 신문의 반응이 가관이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논평에서 ≪갑작스런 특사 파북에는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면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도 얻지 않은 채 밀실에서 엄청난 퍼주기 같은 이면거래를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김정일**의 서울 답방을 구걸하거나 김대중 대통령의 재방북이 추진된다면 국민과 함께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26일자 사설에서 ≪특사 파견이 성사된 과정을 놓고 이미 정치적 의도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임 특사의 활동이 ≪무슨 비밀거래 하듯 음험한 분위기를 풍겨서는 역효과를 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임 특사 파견은 ≪**김정일** 답방 구걸용≫이자 ≪대선(大選)용 신(新)북풍≫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대선을 앞둔 정국이라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남북관계가 국내정치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4.13 총선에서 드러난 것 아닌가. 무엇보다도 남한에서의 정권 장악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 방지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한반도 남쪽에 갇혀 버린 이들의 좁아터진 정치적 상상력이 안타까울 뿐이다.

박인규 세계에디터
프레시안 2002/03/27

부시, 애물단지 ≪제네바 합의≫ 깨고파

내년에 ≪한반도 위기≫ 닥치나 (2) - 김승국

최근 이북에 대한 핵사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네바 협정 체제의 균열음이 들린다. 북·미간 갈등의 미봉책인 제네바 협정의 뚜껑이 열리려는 즈음에 이 협정이 체결된 시대적 배경을 다시금 조명할 필요가 있다. 제네바 협정은 ≪이북의 핵개발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의지의 소산≫이라고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이북이 핵사찰을 거부하는 정치·군사적인 이유를 헤아리기 어렵다.

제네바 협정을 에워싼 북·미간 갈등의 뿌리를 알아야한다. 이 뿌리를 찾기 위해, 1980년대말 소련의 붕괴에 이은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의 변경과 이에 따른 ≪깡패국가≫만들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대 후반 소련 등 동유럽의 붕괴 과정을 낌새챈 미국의 군부·정보기관은, 소련 붕괴 이후 대량파괴무기(핵무기·생화학 무기)가 제3세계 국가로 넘어갈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다. 펜타곤이 일찍이 1988년 1월에 낸 보고서는≪하이테크 통상무기·탄도 미사일·화학무기·핵무기를 보유한 제3세계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을 건의했다.

드디어 미국의 전략 전문가들은,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한 말썽꾸러기(?) 국가들(이북·이라크·이란·리비아·시리아·쿠바 등 반미를 표방하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깡패(불량; rogue) 국가≫또는 ≪무법자(outlaw) 국가≫라는 딱지를 붙인다. 이윽고 학수고대하던 소련의 붕괴가 닥치자, 미국의 전략가들은 ≪깡패국가들이 세계 안보를 해치는 주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냉전 시대의 ≪주적≫ 소련 대신에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주적≫으로 깡패국가들이 등장한 것이다.

주적을 새롭게 옹립(?)했으니 새로운 주적을 상대로 한 전쟁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북·이라크 등 깡패국가중에서 누가 미국의 매를 먼저 맞느냐는 순서 매김이 이루어졌다. 펜타곤에서 치열한 순위다툼을 거친 다음 이라크가 0순위, 이북이 1순위로 되었다.

미국은 0순위인 이라크와 1991년에 걸프전을 치르고, 1순위인 이북과는 1994년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 미국은 제3세계 반미국가들의 대량파괴무기 문제를 풀기 위해 양면 전략을 구사했다. ≪일단 외교적 교섭 등에 의한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전략을 구사한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반확산전략으로 핵시설을 공습·파괴하는 등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이다(걸프전과 1994년의 이북과의 전쟁 일보전 상황은 반확산전략의 극단적인 형태이다).

미국의 이러한 책략에 걸려든 이라크와 이북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확산전략과 반확산전략 사이에서 전쟁의 시계 바늘이 왔다갔다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은 클린턴정권이 들어서도 부시정권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부시정권이 들어선 다음 전쟁의 시계추가 더욱 빨리 움직이는 것뿐이다.

이런 시각에서 제네바 협정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 걸프전 이후의 전쟁터로 이북을 상정한 미국은,≪대량파괴 무기 보유국 이북=악마≫ 타도 분위기를 전 세계적으로 유포하면서 외교·군사 두 방향에서 옥죄었다. 그러나 이북이 예상 밖으로 군사적인 강경대응으로 나오자 주춤하던 미국 정부는, 외교적 수단인 비확산전략의 일환으로 제네바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미국이 외교적인 수단으로 제네바 협정을 체결한 것은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 미국은 당시 이북 전역을 휩쓸던 최악의 식량난을 지켜보며 이북이 곧 붕괴할 것으로 믿었다. 저절로 붕괴할 이북을 상대로 무리하게 반확산전략의 극단적인 형태인 전쟁 카드를 사용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런 판단은 두 가지 문제를 낳았다. 첫째, 이북이 곧 망할 것이라고 과신한 미국의 협상 팀이 제네바 협정을 정치적 문안으로 여긴 나머지 매우 엉성하게 작성했으며, 이게 오늘날 제네바 협정 이행의 해석을 에워싼 난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이북 조기 붕괴론이 오판이었음을 증명하는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북이 미국의 예상과 달리 ≪고난의 행군≫을 통해 되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되살아나는 이북과 지리한 샅바싸움을 벌인 클린턴정권은 끝내 고삐를 늦추고 외교적 해결방안(비확산 전략)으로 복귀했다.

헌대 유감스럽게도 비확산 전략의 제2탄(제네바 협정이 제1탄)인 ≪조·미 코뮤니케≫는 성사 직전에 불발탄으로 그쳤다. 94년 전쟁 일보직전에 불발탄으로 그친 반확산 전략의 진자(振子)가 2000년 말에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조·미 코뮤니케의 성사를 눈앞에 두었으나 그것마저 불발탄이 되었다. 이렇게 반확산전략의 불발탄과 비확산전략의 불발탄 사이에서 ≪전쟁과 평화≫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바람에 한반도 정세의 격동이 이루어졌다.

한편 조·미 코뮤니케가 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평화를 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이에 제동을 건 미국 공화당 계열의 정치세력이 준동하기 시작했다. 마침 미국 대통령 선거의 당락이 엎치락뒤치락 할 때이었다. 이윽고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조·미 코뮤니케는 추풍낙엽이 되었다.

부시 정권이 들어선 뒤 다시금 전쟁 지향적인 반확산전략 쪽으로 진자가 움직이고 있다. 부시 정권은 전쟁정책의 납덩어리인 제네바 협정을 파기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1994년 제네바 협정이전의 북·미관계로 복귀하려 한다. 이북의 ≪과거핵≫ 사찰 시비가 그런 움직임을 재촉할 것이다. 다급하게 움직이는 미국 쪽이 요구하는 핵 사찰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부시정권은 이북 핵사찰의 시간표를 다시 작성함과 동시에, 반확산전략의 극단적인 형태인 전쟁의 시한폭탄을 한반도에 다시 부설할 태세이다.

디지털말 2002/03/25

진보정당건설에 대하여 2 (7)

≪이란에서의 반미, 반황제 운동승리에 작용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모든 반미, 반황제 운동단체들의 연대, 연합이 실현된 것이다. 당시 이란에는 이란인민당(공산당의 전신), 이란민족전선, 학생연맹 등 서로 다른 정치적 지향과 군중적 기반을 가진 반미, 반황제 운동단체들이 많았다. 각 단체들은 보수와 진보,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의 한계를 벗어나 호메이니의 왕조타도와 민주회교공화국수립노선을 일치하게 지지했으며 운동의 전기간 반미, 반황제 세력들의 연대, 연합을 견지했다.

팔레비는 각 반정부단체들의 연대, 연합을 파탄시킬 목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쏘련의 사주를 받고 있다≫, ≪이란애국자들이 올바른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이란에 공산독재정권이 서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반미, 반황제세력들의 연대, 연합을 파탄시키고 특히 회교세력과 진보민주세력간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으려고 했다.

그러나 운동지도자들은 팔레비의 음모를 제때에 간파하고 그것을 분쇄함으로써 항쟁단체들간의 연대, 연합과 행동통일을 끝까지 견지했으며 이로써 반미, 반황제 운동에서 높은 대중성이 보장되게 했다.

반미, 반황제 운동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1978년 12월 10일과 11일 2일간에 걸쳐 진행된 회교순교제기념시위투쟁에는 전국적으로 2, 500여만명(수도에서만 3백만명)이 참여했으며 항쟁이 결정적시기에 들어 선 1979년 2월 이후 투쟁에는 수도에서만도 매일 평균 4백만명이상의 시민들이 궐기했으며 그 와중에 병사들이 집단적으로 시위군중편에 합세함으로써 결국 무장봉기로 발전했고 팔레비친미정권을 타도할 수 있었다.

. . .

지금 한국민족민주운동권의 일각에서는 민노총이나 전국연합을 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상술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합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민노총과 전국연합이 민민운동세력의 연대,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는 매우 정당하지만...

우선 민노총의 경우 그것은 노동자대중의 조직이지 각계각층의 민중을 대변하는 정치조직은 아니다. 또 식민지 한국사회에서 노동계급은 기득권에서 철저히 배제된 계급으로서 변혁운동역량의 핵심적 부분이지만 그들의 투쟁이 노농대중을 비롯한 모든 진보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는 못한다. 물론 1,200만의 노동계급이 똘똘 뭉쳐 한국사회의 합법적인 지도역량으로 부상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민노총의 활동은 노동자대중의 제한된 계급적 이해관계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얼마 전에 있은 서울지하철노조파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당시 시민운동단체들은 수백만 서울시민의 발을 묶는 지하철노조파업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 문제로 민노총과 시민운동단체들 사이에 일정한 오해와 알륵이 생긴바 있다. 이것은 민노총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이익에만 집착함으로써 시민운동단체들을 비롯한 다른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이로부터 민노총은 민민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 충분히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전국연합은 어떠한가. 전국연합은 정치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민노총, 한총련, 시민운동단체들과 같은 유력한 민민운동단체들을 실질적으로 망라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의 진보세력에서 사회적 대표성을 갖지 못하며 또한 민민운동권에서 지도적 권위도 확실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가까운 장래에 전국연합이 민노총이나 한총련, 시민운동단체들을 망라시켜 위상을 크게 개선할 전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국연합 역시 민민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는 충분히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의 사회여건에서 민민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 가장 합당한 것은 합법적인 진보정당이다.

본디 연합전선운동은 각이한 정당, 정파들간에 정치적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그 주체세력으로는 마땅히 정당형태를 갖춘 정치조직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제도정치권 안팎의 여러 정당, 정파와의 폭넓은 정치적 연합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면정권시기인 1961년 2월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가 결성된바 있다. 여기에는 근 40개의 민민운동단체들과 중간혁신정당들까지 참가했다. 당시로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주체세력으로 활동한 것은 사회대중당(대표 김달호), 사회당(대표 최근우)과 같은 합법적인 혁신정당들이었다. 제반 사실들은 연합전선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보더라도 그 주체세력은 정당형태의 정치조직이어야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민운동권안에서 유일하게 정당형태를 갖춘 조직인 민노당은 아직 원내에 단 1명의 의석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 위상이 높지 못하고 또 당의 계급구성면에서도 문제성이 있는 등 적지 않은 부족점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부족점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은 진보적인 정치이념과 자주적 민주사회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진 합법적 진보정당으로서 반동보수정치에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는 민중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 4.13총선과 6.27지방선거를 통해 민노당은 그 어느 민민운동단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정치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야기한 결함들을 고쳐 주어서라도 민노당을 한국사회의 모든 진보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발전시키고 그를 주체세력으로 내세워 모든 민민운동세력, 진보적 시민운동세력을 망라하는 대규모의 민족민주운동련합전선조직체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한국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연합과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 건설문제, 한백연 1999년 11월 발표)

≪더우기 민족통일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극히 부분적이긴 하지만 진보운동권의 일부 사람들속에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통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궤변을 떠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진보정당으로 자처하는 민주노동당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속에서 울려 나오는 궤변이 바로 그런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재영정책국장은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절대로 통일되면 안되겠다느니,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배타적인 민족주의발호속에 파시즘체제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망발을 줴쳤다. 또 민주노동당부대표 노회찬은 연방제는 현실성도 없다고 하면서 남북간의 현 체제하의 통일은 올바른 통일이 아니라는 식의 망언을 했다.

온 민중이 자주통일열기로 들끓고 온 세계가 환영하며 지어 전통적으로 수구기득권에 몸 담아 왔던 보수우익정객들도 그런 반통일적 망언을 삼가하고 자제하는데 이른바 진보정당에 몸담고 있다는 사람들이 반통일을 줴치고 반북을 줴치니 그 저의를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 누구인가. 한국에서 식민지지배권을 유지하고저 온갖 권모술수를 다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수구기득권세력 뿐이다. 그렇다면 민노당의 이재영씨나 노회찬씨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민중이 판단할 것이다.≫(한국변혁운동의 근본과제와 실천, 차민철 2000 12 20)

≪민주노동당에서 기본역량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주화와 민주주의적 변혁을 지향하고 그것을 근본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 인사들이 한사코 사회주의 구호를 들고 나옴으로써 아직은 건실하지 못한 민주노동당의 역량을 분열, 약화시키고 있는데 그런 폐단은 주로 창당준비과정과 창당직후시기에 많이 나타났고 현재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창당준비과정에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손석형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민주노동당은 이념적 측면에서 사회주의적이고 변혁적인 노선을 분명히 포함시켜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계급적 입장이 확고하고 사회주의이념이 명백한 당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등 사회주의적인 주장들을 공공연하게 고집했다. 이로 인해 민주노동당 안에서는 당의 진로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으며 결국 민주노동당은 정강을 밝힌 주요 문서들에 ≪노동자의 해방을 목표로 했던 사회주의이념과 전통을 계승한다≫는 문장을 비롯해 사회주의적인 주장들을 일부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상당수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자주화, 민주화 운동의 견지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창당준비 당시에는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갖고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사업에 합류했었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이 사회주의적 주장을 강변하고 그에 맞게 당을 구성해야 한다고 고집함으로써 자주화, 민주화의 의지를 갖고 합류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창당전야에 대거 떨어져나가 결국 당이 초기의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역량으로 조직되었고 당의 대중적 지반도 협소해지고 말았던 것이다.≫(운동진영 일각에서 사회주의를 당면투쟁과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진 2000 11)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 사회단체의 지위와 조직수준을 넘어서서 정치세력화를 실현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의 정치세력화는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해야 해결되는 문제이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족민주전선의 정치역량만이 아니라 다양한 중간세력을 결집하여 건설될 수 있다. 따라서 진보적 대중정당은 노동계급의 계급정당 또는 노농동맹의 정당이 아니라, 민족민주전선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중간세력들이 결합하는 통일전선의 정당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남측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진보적인 대중정당을 이끌면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 최성원 2000 5)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 민족민주전선이 주도하는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정치조직의 최고형태인 정당을 건설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없다. 정당건설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그 방법론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다. 민족민주전선이 주도하는 정당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주도≫라는 개념에 유의하여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역량이 그대로 정당으로 대체 ·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량이 주도하면서 다른 역량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통일전선적 성격의 당을 건설해야 한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세 가지다.

ㄱ. 민족민주전선은 노동대중과 농민대중의 조직역량을 중심으로 하여 청년, 학생, 여성, 지식인의 조직역량이 총결집된 위력적인 정치세력으로 강화 · 장성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대중의 조직역량이 전선역량의 중심에 확고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이 기층 민중의 조직역량에 의해서 강화 · 장성되어야 통일전선적 성격의 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당 건설 이후에도 당의 모든 사업을 민족민주전선의 요구에 맞게 영도할 수 있다.

ㄴ.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정당건설에 함께 해야 할 동반세력은 개혁세력이다. 지금 남(한국)의 현실을 보면, 친미예속세력과 개혁세력이 뒤섞여 있는 상황인데, 친미예속세력이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가 하면 개혁세력이 친미예속의 늪지에서 허덕이고 있다. 집권상층부의 개혁세력은 고정불변의 친미예속성을 지니고 있어 개조대상이 될 수 없다. 조미 정치협상의 진전에 따라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되고 기층 민중의 조직역량으로 강화 · 장성된 민족민주전선의 반미자주화운동이 상승되면, 집권상층부의 개혁세력은 그들의 친미예속성과 반민중성 때문에 민족민주전선의 정치적 타격을 받고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에 비하여 소자산계급을 기반으로 하는 중간층 개혁세력은 지금은 비록 친미예속성에 기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정세발전의 요구에 따라 개조대상이 될 수 있다. 중간층 개혁세력은 소자산계급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층 민중의 계급적 요구에 부응할 능력이 없으며, 남(한국) 사회가 양극화되는 데 따라 차츰 분해되고 있는 소자산계급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중간층 개혁세력들 가운데서 끝내 친미예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력은 반미자주화운동의 타격을 받고 몰락하게 될 것이며, 반미자주화운동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개조된 개혁세력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개혁세력에게서 친미예속성을 벗겨내고 개조하여 정당건설의 동반세력으로 포용해야 한다.

ㄷ. 통일전선적 성격의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족민주전선과 개조된 개혁세력이 결집하되 민족민주전선이 주도하게 될 정당이며, 앞으로 정세발전에 따라 차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예비하는 정당으로 발전될 것이다.≫(조 · 미 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 한호석 2001 9 18)

≪그래서 먼저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체인 통일전선적 합법당을 강력히 건설해야 한다. 통전당은 여러 정당, 단체들의 연합전선과 같이 그렇게 강유력한 통일전선체로는 될 수 없으나 광범한 민중을 묶어세우는 통일전선의 합리적인 조직형태이다. 통전당은 계급계층별 조직과는 달리 공동의 구호, 통일전선적인 강령에 기초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민족자본가, 소상인, 수공업자, 정치인 등 각계 민중을 하나의 조직에 통일적으로 망라한다. 나아가서 정당, 단체들과의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합법적인 주체세력으로도 될 수 있다.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은 당면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이 과정에서 각 정당, 정파, 단체, 개별인사들과 제휴 · 합작하고 보수정당 내의 개혁세력을 끌어들여 부분적인 연합을 전면적인 연합으로 심화 · 발전시킴으로써 통일적인 연합전선을 결성하고 확대 ·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운동의 당면 중요과업은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이용하여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을 강력히 건설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것이다.

강력한 통전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진지를 잘 구축해야 한다. 진지구축에서 중요한 문제는 지도핵심을 배치하고 중심세력을 잘 꾸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그들에 의거하여 통일전선적 합법당 사업을 성과적으로 조직 · 진행할 수 있다. 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광범히 결속하여 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공고한 핵심진지와 함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에게 기초하는 튼튼한 대중적 기반을 닦지 않고서는 힘있는 통일전선적 합법당을 건설할 수 없다. 특히 노동자, 농민속에 기반을 튼튼히 닦아야 한다. 만일 합법당이 노동자, 농민 속에 기반을 닦지 못하고 상층 정객들, 도시소부르조아계층에나 의거한다면 힘있는 당으로 발전시킬 수 없으며 적들의 파괴책동을 분쇄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은 노동자, 농민들 속에 당의 진지를 튼튼히 구축하면서 청년학생, 도시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 등 각계 민중들과 사회정치세력들에 기반을 확대하여야 한다.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당의 강령과 구호를 올바르게 내걸어야 한다. 강령과 구호를 정확히 들어야만 광범한 대중을 조직 · 결속할 수 있다. 통일전선적 합법당은 그의 통일전선적인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주, 민주, 통일, 생존권 등 최저강령에 기초하여 조성된 정세와 대중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강령과 구호를 제기하여야 한다.≫(합법적 진보정당과 민족민주전선체와 조국통일 범민족전선체의 관계, 필자 미상 2001 9 29)

≪민족민주전선이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층민중과 중간층을 망라하는 각계각층 근로대중의 민주변혁역량을 자기의 전선에 총집결시켜야 하며, 그 힘으로 진보적 대중정당을 창건해야 한다. 이 정당은 남(한국)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근로대중의 정치조직, 다시 말해서 민족해방의 전략적 과업과 두 단계의 민주주의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이다.

. . .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1단계가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2단계로 연속해서 상승 · 발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2단계로 연속해서 상승 · 발전하는 것은 오로지 민족민주전선의 노력과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혁명의 2단계에 이르면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인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족민주전선의 전일적이고 고유한 정치조직, 다시 말해서 민족해방의 전략적 과업과 민중 민주주의의 실현에 전적으로 복무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정치조직으로 전화 · 발전될 것이다.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의 수행정도가 진척되는 것에 따라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 과업이 수행되는 범위와 속도가 정해지게 된다. 제국주의세력의 지배 · 수탈체제가 주한미군철퇴로 치명타를 맞게 되면, 그에 따라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의 권력구조도 흔들리게 될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은 흔들리는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의 권력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체제에 집중적인 정치적 타격을 가하면서 일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1단계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며, 연속적으로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2단계 민주주의 혁명의 전진궤도로 급속히 진출할 것이다.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2단계 민주주의 혁명과정은 곧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은 어디까지나 민족민주전선의 정치역량이 주도하는 사회변혁의 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주체는 민족민주전선체, 그리고 민족민주전선에 결집된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정당)이다.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은 민족민주전선의 강위력한 대중투쟁력, 다시 말해서 근로대중의 조직화된 운동력에 의해서 수행되고 승리하는 사회변혁이며, 또한 그것과 더불어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정당)의 노숙하고 세련된 정치력에 의해서 실현되는 사회변혁이다. 민족민주전선에 총집결한 근로대중의 투쟁력은 개혁정세의 파탄 이후에 전민항쟁의 전투적 역량으로 상승 · 발전될 것이며,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정당)이 창건된 이후에 그 정치조직의 역량은 집권을 준비하는 높은 수준으로 강화 · 발전될 것이다.≫(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에 대하여, 한호석 2001 10 19) (끝)

통일여명 편집위원 한철규 발췌 (편집국 보도 64호)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통일운동의 진두에 서시여 (4)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통일세력의 확고한 우세가 조성되는 정세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남북사이의 폭넓은 대화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가시였다. 1977년 1월에 그분의 주동적인 발기에 의해 남북정치협상회의 소집방안이 제시되였다.

이 제안은 민족분렬이 지속되고 전쟁위험이 짙어지고 있는 정세에 대처하여 민족주체적인 힘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현실적이며 애국적인 발기였다. 그런 까닭에 이남의 각계각층 민중과 진보적인사들의 지지와 찬성을 받았다. 여러나라의 진보적인 정당들과 정부수반들, 저명한 사회활동가들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련대의 뜻을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유신정권≫은 통일보다 ≪평화정착≫이 시급하다는 구실밑에 이 제안의 접수를 거부하고 ≪방문외교≫,≪초청외교≫놀음을 벌리면서 ≪두개한국≫조작음모에 계속 매여달리였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979년 1월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전민족대회소집을 위한 쌍무적 또는 다무적 예비회담 개최에 관한 제안을 발표하도록 하시는 한편 민족적화해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주동적인 조치로서 이북의 전지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일체 중지한다는 것을 선포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쌍방의 접촉과 대화실현을 위한 예비적협의기구인 민족통일준비위원회 조직에 관한 합리적인 제안도 밝히도록 하시였다.

이와 같은 주동적인 조치와 합리적인 제안에 따라 이남측은 대화테블에 끌려나와 앉아서도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쌍방 련락대표들의 접촉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던 끝에 대규모적인 군사훈련의 개시로 이를 파탄시키였다.

자주적평화통일을 통일의 기본방향으로 여기시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남의 박정희역도가 사살된 ≪10.26사건≫이 발생하고 이남의 통치질서가 마비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합작, 단결, 통일로 민족의 출로를 열자≫라는 ≪로동신문≫사설을 발표하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분의 숭고한 민족애와 평화통일의 념원이 그대로 담겨있는 이 력사적인 사설은 이남의 정계와 사회계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남의 애국적 민주세력은 북과의 접촉의 즉각개시와 통일대화를 가로막는 ≪유신헌법≫의 철폐를 요구하여 나섰다.

이런 정세에서 그분께서는 남북사이의 다무적 및 쌍무적접촉을 가질 것을 이남의 각 정당, 사회단에 인사들과 당국의 책임적인 인물들에게 제의하도록 하시였다. 그러나 ≪12.12≫군사쿠데타로 ≪정권≫을 가로챈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북과의 통일은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쌍방총리접촉을 위한 실무대표들의 접촉마저 파탄시켰다.

남북대화는 비록 결실을 보지 못하였지만 사태의 전과정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애국애족적인 립장과 노력을 내외에 널리 보여준 반면에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국지배층과 그 추종세력의 반통일적정체를 극명하게 드러내보였다. (계속)